

연구보고서 2005-2-3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 대학재학생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김태기 류장수 이종훈 이영대

머 리 말

최근 정부에서는 대학교 졸업생들의 취업증대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취업활동을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대학생 개인이며 그만큼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의식과 그들의 취업준비활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원에서는 한국노동경제학회에 ‘대학재학생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연구 수행을 의뢰하게 되었으며 단국대의 김태기교수님과 연구팀이 이 연구를 원만하게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에서는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를 기초로 전국의 대학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관 및 직업관을 조사하고 취업준비활동 실태조사를 하여 보고 대학생의 취업준비 및 만족도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대학생들의 취업지도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 연구를 수행하여 주신 한국노동경제학회와 연구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05년 8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長 金 章 鎬

제 출 문

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체결된 연구 용역계약에 의거 본 보고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대학재학생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과제**』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 김태기(단국대)

공동연구자 : 류장수(부경대)

이종훈(명지대)

이영대(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5. 10.

한국노동경제학회 회장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귀하

목 차

요 약

제1장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제1절 전체 실업의 현황 · 1

제2절 청년실업의 현황 · 3

1.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개관 · 3
2. 직업교육훈련 · 5
3. 직장체험(재학/휴학 중) · 6

제3절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 9

제2장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제1절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15

1. 청년실업대책 사업 · 16
2.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 19
3.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사업 · 20

제2절 청년실업대책 추진현황 · 21

1.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 · 21
2. 부처별 청년실업대책 추진현황 · 22

ii 목차

제3장 대학생 취업준비활동 실태조사

제1절 조사 개요 · 29

제2절 응답자의 인적사항 · 30

제3절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 33

제4절 대학생활에 대한 평가 · 53

제4장 취업 준비활동에 대한 평가

제5장 교육관 및 취업관

제6장 대학생의 재학 중 취업준비 및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제1절 분석모형의 설정 · 109

제2절 분석 결과 · 110

제7장 결 론

제1절 요약 · 117

제2절 정책적 함의 · 121

<부록 1>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 127

참고문헌 · 137

<표목차>

- <표 I-1>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추이 · 1
- <표 I-2> 유형별 실업자 추이 · 2
- <표 I-3> 청년층 인구 현황 · 3
- <표 I-4>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 4
- <표 I-5>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 · 4
- <표 I-6> 청년층 직업훈련 현황 · 5
- <표 I-7> 직업훈련기관 유형 · 6
- <표 I-8> 청년층의 직장체험 여부 · 6
- <표 I-9> 청년층 직장체험 형태 · 7
- <표 I-10> 청년층 취업 경험 · 7
- <표 I-11> 청년층 취업경로 · 8
- <표 I-12> 첫 취업에 소요된 기간 · 9
- <표 I-13> 주요기업의 신규·경력직 채용 추이 · 11
- <표 I-14> 주요기업의 청년층 비중 · 11
- <표 I-15> 학력별 취업률 추이 · 12
- <표 I-16> 취업계수의 추이 및 전망 · 13
- <표 II-1>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 16
- <표 II-2> 청년실업대책사업 · 17
- <표 II-3>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 19
- <표 II-4> 취약계층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사업 · 20
- <표 II-5> 200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 · 21
- <표 II-6> 청년실업대책(2004 이후) · 23
- <표 II-7> 산업자원부 소관 청년실업대책 · 24
- <표 II-8> 정보통신부 소관 청년실업대책 · 25
- <표 II-9> 중기청 소관 일자리 지원사업 · 26
- <표 II-10>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일자리 지원사업 · 27
- <표 II-11> 문화관광부소관 청년실업대책사업 · 28
- <표 III-1> 성별 특성 · 31

- <표 III-2> 군복무유무 · 31
- <표 III-3> 학년구성 · 31
- <표 III-4> 전공분야구성 · 32
- <표 III-5> 가계소득수준 · 32
- <표 III-6> 지출총액 · 33
- <표 III-7> 용돈조달 유형 · 33
- <표 III-8> 대학생의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 34
- <표 III-9> 대학생의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학년별) · 34
- <표 III-10> 대학생의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계열별) · 35
- <표 III-11> 현재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 36
- <표 III-12>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학점별) · 36
- <표 III-13>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가계소득별) · 37
- <표 III-14> 대학생 스스로의 취업준비노력 만족정도 · 38
- <표 III-15> 대학생 스스로의 취업준비노력 만족정도(성별) · 38
- <표 III-16> 대학생 스스로의 취업준비노력 만족정도(학년별) · 39
- <표 III-17> 스스로의 취업준비에 노력 만족도(학점별) · 39
- <표 III-18> 스스로의 취업준비에 노력 만족도(토익점수별) · 40
- <표 III-20> 취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역할 · 41
- <표 III-21> 취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역할(학점별) · 41
- <표 III-22>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 · 42
- <표 III-25>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계열별) · 42
- <표 III-26>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학점별) · 43
- <표 III-27> 대학생의 학교수업을 제외한 일일 평균 학업 시간 · 43
- <표 III-28> 대학생의 학교수업을 제외한 일일 평균 학업 시간(학점별) · 44
- <표 III-29> 대학생의 학교수업을 제외한 일일 평균 학업 시간(학년별) · 44
- <표 III-30> 일일 평균 학업 시간 중 취업준비 시간(학점별) · 45
- <표 III-31> 일일 평균 학업 시간 중 취업준비 시간(계열별) · 45
- <표 III-32> 취업공부 일일 평균시간 · 46
- <표 III-33> 일일 평균 학업 시간 중 취업준비위한 할애 시간(학년별) · 46
- <표 III-34> 일일 평균 학업 시간 중 취업준비위한 할애 시간(학점별) · 46

- <표 III-35>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의 교육여부 · 47
- <표 III-36>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의 교육여부(학년별) · 47
- <표 III-37>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의 교육여부(학점별) · 48
- <표 III-38> 대학생의 학교수업을 제외한 일일 평균 학업 시간(병역의무이행 여부별) · 48
- <표 III-39> 다니는 학원의 종류(복수 응답가능) · 49
- <표 III-40> 다니는 학원의 종류(학년별)* · 49
- <표 III-41> 월 평균 사교육비 · 50
- <표 III-42> 월 평균 학원비 부담 정도(학점별) · 50
- <표 III-43> 현재 평균학점 · 51
- <표 III-44> 현재 평균학점(성별) · 51
- <표 III-45> TOEIC점수(학년별) · 52
- <표 III-46> TOEIC점수 · 52
- <표 III-47> 학년별 토익점수별 분포 · 53
- <표 III-48> 진로 상담 경험 · 54
- <표 III-49> 진로 상담 경험(성별) · 54
- <표 III-50> 진로 상담 경험(학년별) · 55
- <표 III-51> 진로 상담 경험(학점별) · 55
- <표 III-52> 상담경로(성별) · 56
- <표 III-53> 상담경로(학년별) · 57
- <표 III-54> 상담경로(소득수준별) · 57
- <표 III-55> 동아리·학회 활동의 종류(유형) · 58
- <표 III-56> 지난 1년 동안 1달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 58
- <표 III-57>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과 소득 · 59
- <표 III-58>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과 소득(성별) · 59
- <표 III-59>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과 소득 · 60
- <표 III-60> 지난 1년 동안 1달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학점별) · 60
- <표 III-61> 아르바이트의 종류 · 61
- <표 III-62> 아르바이트의 종류(병역의무수행 여부별) · 61
- <표 III-63> 아르바이트의 종류(성별) · 62

- <표 III-64> 아르바이트 참여 목적(순서대로 2개 응답) · 62
- <표 III-65> 군 입대 이외의 이유로 휴학경험 또는 휴학계획 유무 · 63
- <표 III-66> 군 입대 이외의 이유로 휴학경험 또는 휴학계획 유무(학점별) · 63
- <표 III-67> 휴학기간 동안의 계획 · 64
- <표 III-68> 졸업 후 취업 때까지 걸리는 예상 준비기간 · 64
- <표 III-69> 졸업 후 취업 때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계열별) · 65
- <표 III-70> 졸업 후 취업 때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성별) · 66
- <표 IV-1> 졸업 후 진로희망 · 68
- <표 IV-2> 졸업 후 진로희망(계열별) · 69
- <표 IV-3> 졸업 후 진로(성별) · 70
- <표 IV-4> 졸업 후 진로(병역의무수행 여부별) · 70
- <표 IV-5> 졸업 후 희망진로(학년별) · 71
- <표 IV-6> 졸업 후 희망진로(학점별) · 71
- <표 IV-7> 희망하는 구체적 직장선정 유무 · 72
- <표 IV-8> 희망하는 구체적 직장선정 유무(학점별) · 72
- <표 IV-9> 희망 직장 선정의 중요 기준(순서대로 2개 선정) · 72
- <표 IV-10> 희망 직장 선정의 중요 기준(성별)* · 73
- <표 IV-11> 희망 직장 선정의 중요 기준(가계소득별)* · 73
- <표 IV-12> 희망 직장에 취업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순서대로 3개 선택) · 74
- <표 IV-13> 희망 직장 구직시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성별)* · 75
- <표 IV-14>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 · 75
- <표 IV-15>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성별) · 75
- <표 IV-16>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병역의무수행 여부별) · 76
- <표 IV-17>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가계소득별) · 76
- <표 IV-18>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학점별) · 77
- <표 IV-19> 준비하는 시험 종류(복수선택 가능) · 77
- <표 IV-20> 준비하는 시험 종류(성별)* · 78
- <표 IV-21>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 · 78
- <표 IV-22> 준비하는 시험 종류(전공분야별)* · 79

- <표 IV-23>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도 · 80
- <표 IV-24>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도(계열별) · 80
- <표 IV-25>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도(성별) · 81
- <표 IV-26>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도(학년별) · 81
- <표 IV-27> 취업준비에 가장 필요한 정보(복수응답) · 82
- <표 IV-28> 취업준비 정보의 입수 경로(순서대로 3가지 응답) · 82
- <표 IV-29> 대학생의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순서대로 3개 선택) · 83
- <표 IV-30> 대학생의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학년별) · 83
- <표 IV-31> 대학생이 생각하는 대학생의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전공분야별)* · 84
- <표 IV-32> 개인적으로 취업에 가장 어려운 점(전공분야별)* · 85
- <표 IV-33> 개인적으로 취업에 가장 어려운 점(학년별)* · 86
- <표 IV-34> 개인적으로 취업에 가장 어려운 점(순서대로 3개) · 86
- <표 IV-35> 개인적으로 취업에 가장 어려운 점(성별)* · 87
- <표 V-1>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취업에 도움 정도 · 90
- <표 V-2>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취업에 도움 정도(학년별) · 90
- <표 V-3>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취업에 도움 정도(계열별) · 91
- <표 V-4>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취업에 도움 정도 · 92
- <표 V-5>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취업에 도움 정도(학년별) · 92
- <표 V-6>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취업에 도움 정도(계열별) · 93
- <표 V-7> 교수님 수업진행방식이 취업에 도움 정도 · 94
- <표 V-8> 대학의 취업준비지원 정도 · 94
- <표 V-9> 대학의 취업준비지원 정도(학년별) · 95
- <표 V-10> 대학교육을 통한 전공지식 습득의 도움 · 95
- <표 V-11> 대학교육을 통한 대인관계능력 향상의 도움 · 96
- <표 V-12> 대학교육을 통한 대인관계능력 향상도움 정도(성별) · 96
- <표 V-13>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 느끼면 취업할 지 여부 · 97
- <표 V-14>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 느끼면 취업할 지 여부(성별) · 97

- <표 V-15>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 느끼면 취업할 지 여부(병역의 의무 수행 여부별) · 98
- <표 V-16> 급여가 작아도 직장이 안정적이면 취업할 지 여부 · 98
- <표 V-17> 급여가 작아도 직장이 안정적이면 취업할 지 여부(성별) · 99
- <표 V-18> 급여가 작아도 직장이 안정적이면 취업할 지 여부(병역의무수행 여부별) · 99
- <표 V-19> 한번 입사하면 평생 근무한다는 생각 · 100
- <표 V-20>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성별) · 100
- <표 V-21>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병역의무수행 여부별) · 101
- <표 V-22>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이라면 취업하지 않겠다 · 101
- <표 V-23>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이라면 취업하지 않겠다(가계소득별) · 102
- <표 V-24>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하겠다 · 102
- <표 V-25>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하겠다(계열별) · 103
- <표 V-26>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선택 정도(성별) · 104
- <표 V-27>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할 지 여부(병역의무수행 여부별) · 104
- <표 V-28>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하겠다 · 105
- <표 V-29>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선택정도(계열별) · 105
- <표 V-30>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선택정도(성별) · 106
- <표 V-31>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선택정도(학년별) · 106
- <표 V-32>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선택정도(가계소득별) · 107
- <표 VI-1> 취업준비를 위한 필요 정보 보유 정도 · 111
- <표 VI-2>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만족도 · 114

【요약】

최근 청년실업의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졸업 후 취업까지는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 대학생들은 재학중 체계적인 취업준비 및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본 취업전망을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은 실정이다. 노동력의 수요기관인 기업들이 경기를 여전히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지만 부분별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을 방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의 문제는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의 경우 7,88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9,8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상반기에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둔 사업이 있는 반면, 예산 집행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업들이 많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상당한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들이 단기적이라는 것에 정부정책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체험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생들이 취업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취업난의 핵심적 이유를 경제성장의 부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스스로 취업에 대한 가치관이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취업난에 대한 인식은 남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문과의 경우 인문계열에, 이공계의 경우 자연계열에 소속된 대학생이 취업난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학점이나 영어성적 등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 학업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취업난에 대한 불안은 상대적으로 작다.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신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주된 이유는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준비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입생의 경우에도 취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취업준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학이 진로지도에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기능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이 늦게 시작되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시기는 3학년이 된다.

대학생들은 학업 따로 취업준비 따로 하고 있다. 취업준비를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며 영어 등 외국어와 자격시험공부를 한다. 이로 인한 대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은 상당히 크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2명중의 1명꼴로 휴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기간은 1년 정도가 가장 많아 입학 때부터 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된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직장생활체험이나 경력개발 등의 이유보다는 용돈벌기 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신입생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대학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 학년이 올라가 졸업할 때 쯤 되면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년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학을 통해서 채용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교과목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다. 전공, 교과목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을 비교하면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다. 대학교육을 통해서 전공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전공지식과 대인관계능력의 습득을 비교하면 대학교육이 대인관계능력을 키우는데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의 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만,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취업관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직장선택의 기준으로 일에 대한 보람을 중시하고 있고, 취업하면 당장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일을 배울 수 있는 장래성을 중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입사하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며,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은 물론 비정규직으로의 채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취업 후 애로사항을 외모나 신체조건 등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작으며 이것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학점과 영어실력이 진로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학점이나 영어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기업 등의 취업보다는 창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대학원, 기업체 취업과 정부기관 취업 등의 선택은 전공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생이 취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개인적으로는 영어 등 외국어문제이며 사회 전체로 보면 취업에 필요한 정보부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채용정보 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인적자원의 자질에 관한 정보, 기업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자질에 대한 정보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취업에 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과 친구 및 선배 등을 통해서 입수하고 있으며 반면, 대학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미미하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며 이것은 여학생이 인적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취업준비지원활동이 부실하다.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한 관심은 커져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며, 교직원을 상대로 취업지원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등 과거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면접에 대한 요령 등을 아려주는 강좌를 개설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기업 등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이 재학생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업 등 외부에서 대학에 채용광고나 구인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만약 취업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요원들이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면 취업의 문은 지금보다는 넓어질 것으로 본다. 대

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 행정 뿐 아니라 대학교육이 전공지식을 가르치는데 매달리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토론 등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 상호간의 대화가 부족한 데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기초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대학생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을 신뢰하고 있지만 졸업 후에는 대학교육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먼저 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이 대학교육과 유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교육이 수요자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학교육을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노동력의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의 연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대학교육에서 습득하는 전공지식의 경우 기업의 수요와 보다 부합하도록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 그리고 교수학습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지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동시에 빨리 시작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셋째, 외국어에 대한 교육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거나, 휴학까지 하면서 외국어공부 등 취업준비를 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대학생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의 단절을 지양하고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청년층에 대한 노동정책이 후행적 지원에서 선행적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자격제도를 위한 자

격제도가 되지 않도록 자격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면서 근로자인 복합신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 대한 교육정책이 입시정책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교육이 인적자원개발과 맥을 같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을 기술개발 뿐 아니라 교육부문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자격제도의 취득과 자격취득과정의 연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제 1 장 청년실업의 현황과 원인

제1절 전체 실업의 현황

2002년에 안정세를 보이던 실업률이 2003년 이후 상승세로 반전하여 2004년 3.5% 2005년 8월 3.4%로 높아졌다. 2005년 6월부터 실업통계의 기준이 구직기간 1주에서 구직기간 4주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2005년 8월의 실업률은 3.6%, 실업자는 843천명으로 다소 높아졌다. 한편, 2004년 취업률은 59.8%에서 2005년 8월 59.5%로 낮아졌으며 취업자는 2004년 22,557천명에서 2005년 8월 중 22,847천명으로 증가하였다.

<표 I-1>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추이

(단위: 천명, %)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8
실업자 (실업률)	435 (2.0)	568 (2.6)	1,490 (7.0)	1,374 (6.3)	913 (4.1)	845 (3.8)	708 (3.1)	777 (3.4)	813 (3.5)	805 (3.4)
취업자 (취업률)	20,853 (60.8)	21,214 (60.9)	19,938 (56.4)	20,291 (56.7)	21,156 (58.4)	21,572 (58.9)	22,169 (59.9)	22,139 (59.2)	22,557 (59.8)	22,847 (59.5)

주: 구직기간 1주일 기준임.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2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1)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2005년 8월 현재 남자는 550천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16천명(3.0%) 증가하였고, 여자는 292천명으로 21천명 감소하였다. 연령계층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40대 이하에서는 감소한 반면, 50대 이상에는 증가하였다. 교육정도별로는 전년동월대비 중졸이하 및 대졸 이상의 실업자 수는 각각 8천명, 9천명 감소한 반면, 고졸 실업자는 12천명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성별로는 남성, 학력별로는 고졸의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며 연령계층별로는 15~29세인 청년층의 실업률이 다른 계층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I-2> 유형별 실업자 추이

(단위: 천명, %)

		'96	'97	'98	'99	'00	'01	'02	'03	'04. 8	'05. 8
성 별	남 자	299 (2.4)	361 (2.8)	1,005 (7.8)	926 (7.2)	613 (4.7)	561 (4.3)	467 (3.5)	487 (3.6)	535 (3.9)	550 (4.0)
	여 자	136 (1.6)	207 (2.3)	486 (5.7)	448 (5.1)	300 (3.3)	284 (3.1)	241 (2.5)	289 (3.1)	313 (3.3)	292 (3.0)
학 력 별	중졸 이하	83 (1.1)	118 (1.5)	403 (5.9)	360 (5.2)	227 (3.3)	191 (2.9)	138 (2.1)	122 (2.0)	154 (2.6)	146 (2.5)
	고 졸	238 (2.5)	315 (3.3)	790 (8.3)	734 (7.6)	471 (4.8)	433 (4.3)	358 (3.5)	411 (4.1)	434 (4.3)	446 (4.4)
	대졸 이상	114 (2.6)	134 (3.0)	297 (5.9)	281 (5.4)	216 (4.0)	221 (3.8)	212 (3.5)	243 (3.5)	260 (3.6)	251 (3.3)
연 령 계 층 별	15~29세	264 (4.6)	322 (5.7)	655 (12.2)	574 (10.9)	402 (7.6)	388 (7.5)	341 (6.6)	383 (7.7)	370 (7.6)	354 (7.4)
	30~39세	89 (1.4)	122 (1.9)	364 (5.7)	336 (5.3)	217 (3.4)	193 (3.0)	177 (2.8)	182 (2.9)	208 (3.3)	206 (3.3)
	40~49세	50 (1.1)	72 (1.5)	273 (5.6)	267 (5.2)	180 (3.3)	162 (2.8)	111 (1.9)	128 (2.1)	162 (2.6)	159 (2.5)
	50~9세	26 (0.9)	37 (1.3)	155 (5.3)	153 (5.1)	88 (2.9)	79 (2.6)	56 (1.8)	66 (2.0)	80 (2.4)	97 (2.6)
	60세 이상	7 (0.4)	14 (0.8)	44 (2.4)	44 (2.3)	26 (1.3)	23 (1.1)	22 (1.0)	19 (0.9)	28 (1.2)	28 (1.2)
합 계		435	568	1,490	1,374	913	845	708	777	848	843

주: ()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 <http://kosis.nso.go.kr>.

제2절 청년실업의 현황

1.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개관

최근 청년층(15-29세)의 실업률 현황은 2005년 5월 통계청이 조사한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청년층의 인구분포를 보면, 2005년 5월 현재 청년층 인구는 2002년 6월 대비 6.9% 감소한 9,926천명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중 졸업·중퇴자는 5,392천명(54.3%), 재학·휴학생은 3,904천명(45.6%)으로 나타났다.

<표 I-3> 청년층 인구 현황

(단위: 천명, %)

	청년층 전체인구	졸업·중퇴	재학	휴학	기타
2005. 5.	9,926 (100.0)	5,392 (54.3)	3,904 (39.3)	625 (6.3)	5 (0.0)
2004. 5.	10,161 (100.0)	5,627 (55.4)	3,961 (39.0)	570 (5.6)	4 (0.0)
2003. 5.	10,405 (100.0)	5,690 (54.7)	4,165 (40.0)	546 (5.2)	4 (0.0)
2002. 6.	10,663 (100.0)	5,864 (55.0)	4,258 (39.9)	533 (5.0)	7 (0.1)

* ()는 구성비.

자료: 통계청.

청년층 중에서 졸업/중퇴자 및 재학/휴학생 경제활동 상태를 살펴보면, 전체 청년인구 중에서 졸업/중퇴자는 5,392천명이며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4,108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285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6.2%, 실업률은 7.6%로 나타났다.

한편, 재학/휴학생 중 취업자는 701천명, 실업자는 34천명, 비경제활동인구는 3,794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6.2%, 실업률은 4.6%로 나타났다.

4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1)

<표 I-4> 청년층 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명, %)

	청년층인구 졸업/중퇴 (재학/휴학)	경제 활동인구	취업자		비경제 활동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취업자	실업자			
2005. 5.	5,392 (4,529)	4,108 (735)	3,796 (701)	311 (34)	1,285 (3,794)	76.2 (16.2)	7.6 (4.6)
2004. 5.	5,627 (4,531)	4,269 (713)	3,938 (659)	331 (54)	1,358 (3,818)	75.8 (15.7)	7.8 (7.6)
2003. 5.	5,690 (4,711)	4,294 (647)	3,969 (614)	325 (33)	1,396 (4,064)	75.5 (13.7)	7.6 (5.1)
2002. 6.	5,864 (4,791)	4,398 (713)	4,128 (678)	270 (35)	1,467 (4,078)	75.0 (14.9)	6.1 (4.9)

* ()는 재학/휴학생.

자료: 통계청.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 분포를 살펴보면, 2005년 졸업/중퇴 청년층 취업자는 2002년 6월 4,128천명에서 8.0% 감소한 3,796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산업별 분포를 보면, 도소매 음식숙박업 취업자의 감소 폭이 두드러졌으며 건설업, 전기·운수창고·금융업 등도 2002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다. 취업자 비중은 제조업, 사업·개인 공공서비스업은 증가하였으나, 도소매·음식숙박업, 전기·운수창고·금융업의 비중은 감소하였다.

<표 I-5>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현황

(단위: 천명, %)

	졸업/ 중퇴 취업자	농림 어업	광공업	제조업	사회간접자본 · 기타서비스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 공공 서비스업	전기·운수 창고· 금융업
2004. 5.	3,938 (100.0)	31 (0.8)	863 (21.9)	861 (21.9)	3,043 (77.3)	205 (5.2)	1,038 (26.4)	1,457 (37.0)	344 (8.7)
2003. 5.	3,969 (100.0)	42 (1.1)	844 (21.3)	841 (21.2)	3,083 (77.7)	208 (5.2)	1,050 (26.5)	1,437 (36.2)	389 (9.8)
2002. 6.	4,128 (100.0)	43 (1.0)	860 (20.8)	857 (20.8)	3,224 (78.1)	242 (5.9)	1,150 (27.9)	1,431 (34.7)	402 (9.7)

자료: 통계청.

2. 직업교육훈련

전체 청년층 인구 중에서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사람은 청년층 인구의 17.2%인 1,70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하였다. 직업훈련을 받은 경우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의 청년층은 직업훈련 없이 취업으로 나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을 받은 사람 중에서 재학/휴학 중에 받은 사람은 2004년 5월에 비하여 30만 명이나 감소하였다.

<표 I-6> 청년층 직업훈련 현황

(단위: 천명, %)

	청년층 인구	훈련 경험 없음	훈련 경험 있음	재학/ 휴학중	졸업/ 중퇴이후	재학/ 휴학 및 졸업/ 중퇴 이후	미상
2005. 5.	9,926 (100.0)	8,216 (82.8)	1,705(100.0) (17.2)	889 (52.1)	661 (38.8)	156 (9.1)	5 (0.0)
남	4,785 (100.0)	4,137 (86.5)	647 (100.0) (13.5)	344 (53.2)	253 (39.2)	49 (7.6)	1 (0.0)
여	5,141 (100.0)	4,080 (79.3)	1,058(100.0) (20.6)	545 (51.4)	408 (38.5)	106 (10.0)	3 (0.1)
2004. 5.	10,161 (100.0)	8,172 (80.4)	1,985(100.0) (19.5)	1,109 (55.9)	725 (36.5)	151 (7.6)	4 (0.0)

자료: 통계청.

직업훈련 받은 기관을 살펴보면, 직업훈련 경험이 있는 청년층 인구 (1,705천명) 중에서 1,131천명(66.3%)은 사설학원에서 직업훈련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사설학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공 직업훈련기관 236천명(13.9%), 민간직업전문학교 124천명(7.3%)으로 나타나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6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1)

<표 I-7> 직업훈련기관 유형

(단위: 천명, %)

	직업훈련 유경험자	공공직업 훈련기관	민간직업 전문학교	사업체 훈련기관· 사업체부설연수원	사설학원	기타
2005. 5.	1,705 (100.0)	236 (13.9)	124 (7.3)	107 (6.3)	1,131 (66.3)	107 (6.3)
남	647 (100.0)	141 (21.8)	60 (9.3)	57 (8.8)	369 (57.1)	20 (3.0)
여	1,058 (100.0)	95 (9.0)	64 (6.0)	50 (4.7)	762 (72.0)	87 (8.2)
2004. 5.	1,985 (100.0)	235 (11.8)	130 (6.5)	123 (6.2)	1,304 (65.7)	193 (9.7)

자료: 통계청.

3. 직장체험(재학/휴학 중)

전체 청년층 인구 가운데 학교 재학 중 또는 휴학기간 동안에 「직장체험 경험 있음」은 44.0%(4,370천명)로 나타났으며, 55.9%(5,551천명)는 재학/휴학기간에 직장체험 경험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청년층이 재학 혹은 휴학 기간 중에 직장체험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8> 청년층의 직장체험 여부

(단위: 천명, %)

	청년층인구	직장체험 경험 있음1)	직장체험				직장체험 경험 없음	미상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2005. 5.	9,926 (100.0)	4,370 (44.0)	2,159 (21.7)	1,078 (10.9)	495 (5.0)	638 (6.4)	5,551 (55.9)	5 (0.0)
남	4,785 (100.0)	2,092 (43.7)	1,008 (21.1)	523 (10.9)	236 (4.9)	325 (6.8)	2,691 (56.2)	1 (0.0)
여	5,141 (100.0)	2,278 (44.3)	1,150 (22.4)	556 (10.8)	259 (5.0)	313 (6.1)	2,860 (55.6)	3 (0.1)
2004. 5.	10,161 (100.0)	4,255 (41.9)	2,162 (21.3)	1,000 (9.8)	521 (5.1)	572 (5.6)	5,902 (58.1)	4 (0.0)

주: 1) 취업포함.

자료: 통계청.

전체 청년층 인구 중 재학 또는 휴학기간 동안 직장체험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장체험 형태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로 아르바이트」가 57.3%(2,504천명), 「전일제로 직장에 취업」은 30.3%(1,325천명)로 나타나 체계적인 직장체험보다는 아르바이트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다.

<표 I-9> 청년층 직장체험 형태

(단위: 천명, %)

	직장체험 경험자	전일제로 직장에 취업	시간제로 아르바이트	학교의 현장 실습	기업 인턴	정부지원 직장체험 프로그램
2005. 5.	4,370 (100.0)	1,325 (30.3)	2,504 (57.3)	441 (10.1)	59 (1.4)	41 (0.9)
남	2,092 (100.0)	644 (30.8)	1,224 (58.5)	186 (8.9)	26 (1.2)	13 (0.6)
여	2,278 (100.0)	681 (29.9)	1,280 (56.2)	255 (11.2)	33 (1.5)	28 (1.2)
2004. 5.	4,255 (100.0)	1,377 (32.4)	2,226 (52.3)	558 (13.1)	53 (1.2)	41 (1.0)

자료: 통계청.

졸업/중퇴 청년층 인구 중 「취업경험 있음」의 경우는 91.7%(4,944천명)로 나타났으며, 취업경험이 한번도 없었던 경우는 8.3%(448천명)로 나타났다. 취업경험이 없는 경우는 2002년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였다.

<표 I-10> 청년층 취업 경험

(단위: 천명, %)

	졸업/중퇴 청년층인구	취업경험 있음 ¹⁾	취업경험 없음				미상	
			한 번 ¹⁾	두 번 ²⁾	세 번	네 번 이상		
2005. 5.	5,392 (100.0)	4,944 (91.7)	1,906 (35.3)	1,239 (23.0)	933 (17.3)	866 (16.1)	448 (8.3)	-
2004. 5.	5,627 (100.0)	5,174 (91.9)	2,039 (36.2)	1,327 (23.6)	977 (17.4)	831 (14.8)	452 (8.0)	-
2003. 5.	5,690 (100.0)	5,179 (91.0)	2,293 (40.3)	2,886 (50.7)	-	-	455 (8.0)	56 (1.0)
2002. 6.	5,864 (100.0)	5,439 (92.8)	2,084 (35.5)	3,355 (57.2)	-	-	425 (7.2)	-

주: 1) 현재 취업 포함, 2) 2002, 2003년 자료는 두 번 이상임.
자료: 통계청.

졸업/중퇴 청년층의 주된 취업경로는 「연고에 의한 취업」이 45.3%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가족·친지의 소개(추천)에 의한 취업」이 2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년 동월대비 「연고취업」의 비중은 4.0%p 하락한 반면,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 및 「공개시험」의 비중은 각각 3.1%p, 1.2%p 상승하였다.

교육정도별 취업경로를 보면, 학력이 낮을수록 가족·친지 소개 등에 의한 「연고 취업」 비중이 많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공개시험에 의한 취업」 비중이 늘어났다.

<표 I-11> 청년층 취업경로

(단위: 천명, %)

	졸업/ 중퇴 취업자	연고 취업	가족/ 친지소개 (추천)	그 직장 근무자 소개(추천)	학교(학원) 선생님 추천	신문, 잡지, 인터넷 등 응모	공개 시험	특별 채용	그 외
중졸 이하	111 (100.0)	63 (56.2)	34 (30.9)	27 (23.9)	2 (1.4)	41 (36.5)	0 (0.0)	2 (2.1)	6 (5.1)
고졸	1,542 (100.0)	871 (56.5)	489 (31.7)	242 (15.7)	140 (9.0)	419 (27.2)	92 (6.0)	48 (3.1)	112 (7.3)
대졸 이상	2,143 (100.0)	785 (36.6)	347 (16.2)	213 (9.9)	226 (10.5)	592 (27.6)	526 (24.5)	94 (4.4)	146 (6.8)
·3년제 이하	1,119 (100.0)	484 (43.3)	220 (19.6)	132 (11.8)	133 (11.9)	367 (32.8)	156 (13.9)	40 (3.5)	73 (6.5)
·4년제 이상	1,024 (100.0)	301 (29.4)	127 (12.4)	81 (7.9)	93 (9.1)	225 (22.0)	370 (36.1)	55 (5.3)	73 (7.1)
2004. 5.	3,938 (100.0)	1,942 (49.3)	1,042 (26.5)	494 (12.5)	406 (10.3)	970 (24.6)	596 (15.1)	142 (3.6)	288 (7.3)
2003. 5.	3,929 (100.0)	1,950 (49.6)	1,034 (26.3)	487 (12.4)	429 (10.9)	884 (22.5)	629 (16.0)	140 (3.6)	326 (8.3)
2002. 6.	4,128 (100.0)	2,034 (49.3)	1,178 (28.5)	484 (11.7)	372 (9.0)	945 (22.9)	605 (14.7)	165 (4.0)	379 (9.2)

자료: 통계청.

청년층이 졸업/중퇴이후 임금근로 형태로 취업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된 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첫 취업에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첫 취업시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0개월로 2004년에 비해 1개월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12> 첫 취업에 소요된 기간

(단위: 천명, %)

	졸업/ 중퇴취업 유경험자	임금 근로자	3개월	3~6개월	6월~1년	1~2년	2~3년	3년	평균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이상	
2005. 5	4,944	4,794 (100.0)	2,698 (56.3)	574 (12.0)	414 (8.6)	467 (9.7)	237 (4.9)	404 (8.4)	10개월
2004. 5	5,174	5,011 (100.0)	2,811 (56.1)	568 (11.3)	423 (8.4)	538 (10.7)	235 (4.7)	436 (8.7)	11개월
2003. 5.	5,179	4,968 (100.0)	2,678 (53.9)	547 (11.0)	412 (8.3)	556 (11.2)	277 (5.6)	498 (10.0)	12개월
2002. 6.	5,439	5,008 (100.0)	2,666 (53.2)	644 (12.9)	418 (8.4)	552 (11.0)	267 (5.3)	461 (9.2)	11개월

자료: 통계청.

제3절 청년실업의 원인분석

첫째, 실업이 발생하는 원인은 총수요부족이 가장 큰 이유라 할 수 있다. 청년실업의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의 투자 부진, 민간소비 격감 등 노동수요 부족에서 찾을 수 있다.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경제성장률은 3%대를 유지하고 있어 전반적인 일자리 창출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률 1% 포인트에 5~7만 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함에 따라 연 10만여 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IT산업이나 첨단업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용창출능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는 것도 청년층 실업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고성장업종의 고용창출능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산업구조가 고도화할수록 실업률이 상승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섬유, 건설 등이 사양화 내지 성숙한 반면, IT산업 등 첨단업종은 지난 1994~2002년간 생산이 연평균 27.8% 증가했지만 고용은 3.4% 소폭증가에 그쳤다. 향후 IT산업 등과 같이 새로운 성장산업이 발전하더라도 이들 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실업문제의 획기적인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경기변동에 따른 노동시장의 대응이 더 늦게 나타나기 때문에 성장둔화(산업 전체의 고용흡수력 침체)에 따른 고용위축의 영향이 청년층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Makenham(1980), Raffe(1985)는 청년층이 경기후퇴의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주장하였다. 청년층은 중장년층에 비해 경기후퇴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경기후퇴에 대응하여 기업이 고용구조조정에 나설 경우 기존인력의 고용을 조정하는 것보다 신규채용을 줄이는 쪽이 보다 용이한 일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신규채용을 줄이게 되면, 그 여파가 노동시장에 신규진입하려는 청년층에 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둘째, 경력직 위주로의 기업채용형태 변화와 상시 구조조정체제의 정착은 신규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청년층의 실업을 악화시킬 수 있다. 과거와는 다르게 대기업에서 청년층(신규인력) 채용경향이 둔화되고 기업들은 신입직원보다는 경력자를 선호하는 경력중시 유형으로 채용 행태가 바뀌고 있다. 청년층 채용을 기피하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호하는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여 청년층 채용비중이 2003년 20.8%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전인 1997년 25.2%에 비해 4.4%p 낮아졌다. 채용된 청년층 구성을 보면 1997년에는 신규졸업자가 60.7%, 경력자가 39.3%를 차지한 반면 외환위기 이후인 2002년에는 신규졸업자가 18.2%, 경력자가 81.8%가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3> 주요기업의 신규·경력직 채용 추이

(단위: 천명, %)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전 체	1,573	1,407	1,321	1,319	1,234	1,247
신규 채용	955 (60.7)	637 (45.3)	358 (27.1)	286 (21.7)	263 (21.3)	227 (18.2)
경력자 채용	618 (39.3)	770 (54.7)	963 (72.9)	1,033 (78.3)	971 (78.7)	1,020 (81.8)

주: 주요기업은 공기업과 금융기관 및 30대 대기업을 포함, 경력자채용은 이전에 취업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를 일컬으며 ()안은 채용비중.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 DB』.

셋째, 노동시장의 수급불일치로 고학력 층격과 고용흡수력 저하를 들 수 있다. 청년층 구직자들은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를 선호하지만 그러한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지고 있다. 노동부 고용보험DB에 의하면 대졸자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융기관 일자리 수는 1997년 이후 5년 동안 32만 6천개 가량 감소하였다. 실제로 주요 기업별 청년층의 비중을 보면 대기업 1997년 10월 40.0%에서 2002년 10월 26.9%로 낮아졌으며 공기업은 19.6%에서 8.1%, 금융기관은 41.2%에서 31.1%로 낮아졌다. 한마디로 청년층이 원하는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여 청년층 실업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표 I-14> 주요기업의 청년층 비중

(단위: %)

	'97.10	'98.10	'99.10	'00.10	'01.10	'02.10
합 계	37.1	34.9	31.3	29.1	28.1	25.0
30대 대기업집단	40.0	37.6	32.3	30.0	30.4	26.9
공기업	19.6	18.2	17.4	15.1	11.3	8.1
금융산업	41.2	39.2	37.8	35.6	33.8	31.1
벤처기업	44.7	45.8	44.6	46.7	46.9	44.0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여기에 노동공급의 고학력화로 인해 인력의 수급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청년실업을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졸인력의 공급은 대학(전문대 포함)진학률의 급증으로 1995~003년간 181천명(55.9%) 정도 증가하였지만 대졸 취업률은 1997년 61.8%에서 2003년 59.2%, 2004년 56.4%로 낮아졌으며, 고졸 취업률 역시 1997년 69.3%에서 2003년 66.3%, 2004년에는 60.1%로 낮아졌다.

<표 I-15> 학력별 취업률 추이

(단위: %)

	1990	1995	1997	1999	2001	2003	2004
대 졸	55.0	60.9	61.8	51.3	56.7	59.2	56.4
전문대졸	71.8	74.2	75.5	68.1	81.0	79.7	77.2
고 졸	51.0	69.3	72.5	64.9	66.4	66.3	60.1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또한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고용흡수력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취업계수(부가가치 1억 원당 취업자수)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1990년의 6.03명에서 2002년 3.48명으로 약 2배 정도 급감하였다. 제조업의 고용흡수력은 1990년 5.91에서 2000년에는 2.28로 2배 이상 현격히 떨어졌으며 향후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종의 취업계수는 증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이 서비스업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서비스업의 취업계수 급격한 증가는 서비스 분야 일자리의 질적 저하 가속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동일한 부가가치를 증대시키는데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I-16> 취업계수의 추이 및 전망

(단위: 명/억원)

구 분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P	2010 ^P
전산업	10.60	7.82	6.03	4.56	3.70	3.03	2.40
제조업	10.31	7.20	5.91	3.75	2.28	1.72	1.27

주: 취업계수는 1억 원어치의 국내총생산(2000년 기준 불변 GDP)을 생산할 때, 창출 되는 일자리 수를 나타내는 수치임.

자료: KDI(2002), 『산업별 전망 및 취업계수전망』.

넷째, 청년층의 직업능력 취약을 들 수 있다. 대졸자의 양적인 팽창에도 불구하고 직업불일치는(job-mismatch)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0년 기준 취업자와 취업경험자의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는 정도는 33%에 불과한 반면, 40%에 가까운 취업자들이 자신의 전공과 일치하지 않아 잦은 이직현상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신규 대졸 실업자들이 노동시장에 부적절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고학력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신성장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 및 연구기술직 등 고급인력은 여전히 부족상태이다. 2001년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국가전략 분야(IT, BT, NT, ST, ET, CT)의 신규수요(408,479명), 양성인력(221,993명)으로 186,486명(45.6%)이 부족한 상태이다. 급변하는 기술진보로 대학교육과 직업훈련은 산업인력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어, 신성장산업 분야의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대졸인력의 과잉공급에도 불구하고 대졸자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저하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째, 마찰적 실업을 들 수 있다. 2005년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청년층이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 소요기간은 3개월 미만인 경우가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첫 취업에 3년 이상 소요된 경우도 8.4%로 나타났다. 첫 취업 시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10개월로 여전히 취업대기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청년층 직업관과 근로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청년들은 가치 있는 일보다 쉬운 일을 선호하

는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3D업종보다 서비스업종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높은 보수와 안정된 자리를 원하면서도 치열한 자기계발과 현장경험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직업선택에 있어서 이중 잣대를 가지는 것도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은 인력 부족 현상이 상시화 되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 2 장 청년층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제1절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청년층의 취업능력을 제고하는 것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통계청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청년층의 직장 체험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이 직장체험을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을 활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을 개괄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사료된다.

청년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대학생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2003년 이후 정부는 일자리지원 정책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지원정책 관련 사업으로는 청년실업대책사업,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 및 취약계층 일자리창출사업과 직업훈련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13개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다. 2004년에 1조 2,329억원을 총 37만3,065명에게 지원한 바 있고, 2005년도에는 계획 예산이 1조 4,609억원을 39만 6,510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표 II-1>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

(단위: 억원, 명)

사업명	소관 부처수	2003실적		2004 실적		2005 계획	
		결산	인원	결산	인원	예산	인원
청년실업대책	13	3,132	146,474	6,020	188,513	7,883	189,863
사회적일자리지원사업	6	818	7,071	1,560	21,632	2,140	31,944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	4	4,232	123,788	4,749	162,920	4,586	174,703
합계	23	8,182	277,333	12,329	373,065	14,609	396,510

자료: 기획예산처.

1. 청년실업대책 사업

우선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청년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부처의 특성에 따라 추진 중에 있다. 예를 들어 직장체험 활성화, 단기 일자리제공, 해외취업 인턴 활성화, 청년층 직업훈련강화, 청년취업 인프라 확충 및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창출 등을 들 수 있다. 2004년도에는 6,02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7,88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실업대책이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효과는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05년 국회 예산정책처의 청년실업대책 평가에 잘 나타나 있지만, 지나치게 단기적인 성과에 의존하고 있는 사업이 많으며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진하여 취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렇지만 청년층의 고용사정이 악화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요구된다 하겠다. 정부의 청년실업 대책에 대한 성과평가는 그 중요성에 비추어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다. 예산투입률, 목표대비 달성률 등 진도 점검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청년실업대책의 성과를 대표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을 위한 연구는 다음으로 미루기로 한다.

<표 II-2> 청년실업대책사업

(단위: 억원, 명)

사업명	소관	2005	
		금액	인원
①직장체험 활성화		1,117	82,330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노동부	625	75,000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산자부	150	3,000
○IT인턴십 지원사업	정통부	10	600
○신진연구자 연수지원	교육부	80	922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산자부	80	468
○문화산업 청년인턴채용	문광부	129	2,240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중기청	40	(55,000)
○농업인턴십 지원	농림부	4	100
②단기 일자리 제공		2,389	18,988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정통부	664	2,600
○국가기록물 정리사업	행자부	45	308
○구인업체 개척사업	노동부	56	2,800
○문화원형창작디지털콘텐츠화	문광부	120	600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산자부	-	-
○국민연금상담사 채용	복지부	225	1,650
○군부사관 인력확충	국방부	166	2,000
○행정정보 DB구축	행자부	1,113	9,030
③해외취업인턴 활성화		452	4,903
○전문직 해외취업지원	노동부	107	2,000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중기청	85	1,000
○청년무역인력 양성	산자부	19	190
○IT인력 해외연수 지원	정통부	-	-
○KOICA개발협력단 사업	외교부	223	1,393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정통부	18	320
④청년층 직업훈련강화		1,935	61,490
○기능사양성 특별훈련	노동부	439	26,520
○정부위탁훈련	노동부	831	11,000
○취업 유망분야 훈련	노동부	428	17,000
○저소득청소년 S/W기술교육	정통부	39	(35,120)
○체대예정사병 취업지원	국방부	3	-
○중소기업청년채용패키지	중기청	175	5,500
○지방대 Trade Incubator설치	산자부	13	1,250
○IT중소벤처기업 인력지원	정통부	5	120
○대학생 영농창업연수	농림부	3	100

<표 계속>

18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⑤청년취업인프라 확충		288	-
○고용안정센터 육성	노동부	72	-
○창업교육 강화	중기청	57	-
○취업지원프로그램 구축	노동부	26	-
○고용안정정보망 운영	노동부	30	-
○중장기인력수급전망모델구축	노동부	21	-
○종합직업체험관(Job World)	노동부	10	-
○인적자원 종합정보망 구축	교육부	9	-
○지역인적자원개발기반조성	노동부	37	-
○기타 ¹⁾	노동, 정통, 문광, 교육부, 중기청	27	-
⑥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		1,519	30,193
○중소기업직업훈련컨소시엄	중기청	238	-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노동부	204	1,359
○중소기업전문인력채용지원	노동부	78	542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	노동부	97	1,354
○교대제전환지원금	노동부	115	3,197
○장기구직자고용촉진장려금	노동부	787	23,741
⑦기 타		183	460
○뉴패러다임 확산	노동부	19	-
○학교기업육성	교육부	130	130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쉽	교육부	20	330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중기청	10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지원	여성부	4	-
⑧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²⁾	인사위, 예산처, 국조실, 행자부	-	54,352

주: 1) 노사협력능력개발지원 + 구인구직채용박람회+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촉진 + 청년창업보육센터 지정·운영 + 여성 IT인력채용박람회 + 문화콘텐츠온라인채용관 운영.

2) 국가공무원(선관위 포함) 채용 + 지방공무원(시도, 지방교육공무원) 채용 + 공기업 등 채용 + 출연연구기관 채용.

자료: 기획예산처.

2.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

사회적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선진국 사회로 이행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충분히 공급되기 어려운 분야로서 정부의 재정 지원과 민간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은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을 비롯하여 교육부, 복지부, 여성부, 환경부, 문광부 및 산림청 등이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도에는 1,560억원을 2만 1,632명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2,140억원을 3만1,944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표 II-3>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단위: 억원, 명)

사업명	소관	2005	
		금액	인원
○장애아 교육보조원	교육부	77	2,250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교육부	9	36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교육부	3	320
○방과 후 교실 보조인력	교육부	0	0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복지부	49	500
○보육시설 사회적 일자리	여성부	216	4,280
○방문도우미사업	복지부	359	7,000
○대도시방문보건사업	복지부	-	-
○숲가꾸기사업	산림청	235	2,000
○생태우수지역 일자리창출	환경부	64	480
○사회적일자리 제공	노동부	258	3,910
○사회적 노인일자리 지원 ¹⁾	복지부	42	5,950
○연극국악영화 시간제강사풀	문광부	71	1,504
○아동복지시설문화예술교육	문광부	35	250
○생활체육지도자	문광부	86	1,117
○여성 사회적일자리창출 지원	여성부	28	3,000
○각종 사회복지시설 증설에 따른 일자리 창출(순증, 누계)	복지부, 여성부	-	7,667

주: 1) 취약계층 일자리 중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의 일부.

자료: 기획예산처.

3.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및 직업훈련사업

취약계층인 고령자, 여성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사업과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사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중요한 지원정책이라 할 수 있다. 2004년도에는 4,749억원을 16만2,920명에게 지원한 바 있으며, 2005년도에는 4,586억원을 17만4,703명에게 일자리 및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으로 있다.

<표 II-4> 취약계층일자리지원 및 직업훈련사업

(단위: 억원, 명)

사업명	소관	2005	
		금액	인원
○노인인력기관운영지원 ¹⁾	복지부	91	-
○고령자인재은행지원	노동부	4	-
○노인일자리지원	복지부	200	35,000
○여성창업활성화	중기청	22	-
○여성창업자금지원	여성부	130	60
○장애인자립자금대여사업	복지부	169	1,000
○장애인취업지원	노동부	68	600
○자영업창업지원	노동부	400	620
○자활근로	복지부	2,021	60,000
○자활취업촉진	노동부	20	1,040
○자활공동체창업자금지원	복지부	20	-
○노사공동재취업지원센터지원	노동부	21	-
○비입소 탈성매매여성창업자금지원	여성부	8	27
○실업자재취직훈련지원금	노동부	1,188	54,395
○고용촉진훈련	노동부	102	10,371
○자활훈련	노동부	82	5,040
○산재장애인직업훈련	노동부	87	3,000
○전업주부재취업훈련지원	여성부	5	1,380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노동부	24	2,200

주: 1) 노인취업알선센터(대한노인회) 지원+(중앙)노인인력운영센터운영 지원.

1.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이 2005년 지방으로 이양됨에 따라 생산품판매시설지원을 통계에서 제외되었고, 공공근로사업은 2005년 지방이양사업으로 집계 제외.

자료: 기획예산처.

제2절 청년실업대책 추진현황

1. 2004년도 예산집행 현황

청년실업대책 사업은 청년층(15세~29세)의 취업지원을 위해 취업훈련, 인턴, 연수 및 장단기 일자리를 지원하여 청년층의 실업률을 해소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 청년실업대책 사업의 200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7개 분야 39개 사업에 대한 예산현액 6,304억 원중 95.5%인 6,020억원이 집행되었고, 사업추진실적은 당초 계획인원 9만 9,059명보다 8만 9,454명이 증가한 18만 8,513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5> 2004년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내역

(단위: 억원, 명)

세부사업별(사업수)	사업비			사업추진실적(인원)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계획	참여
합 계(39)	6,304	6,020	95.5	99,059	188,513
직장체험 활성화(7)	1,761	1,752	99.5	17,000	97,932
단기 일자리 제공(6)	1,145	1,084	94.7	9,723	11,561
해외취업인턴 활성화(5)	420	420	100	4,898	5,116
청년층 직업훈련강화(8)	2,194	2,072	94.4	60,807	67,536
청년취업인프라 확충(7)	218	218	100	-	-
중소기업 유휴일자리 충원(2)	323	236	73.1	4,291	3,562
기 타(4)	243	238	97.9	2,340	2,806

자료: 기획예산처.

2. 부처별 청년실업대책 추진현황

가. 노동부

2004년 노동부의 청년실업대책은 5,883억원, 대상인원 221,032명을 계획하였으나, 실적 인원은 목표치를 상회하였으며 예산집행율은 94.1%에 그쳤다. 2005년의 경우 목표 인원 245,689명 대비 2005년 7월 현재 76.3%를 달성하여 높은 실적치를 보여주고 있다. 예산 기준으로 보면 예산 6,706억 원 중에서 7월 현재 53.2%를 투입하여 예산투입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노동부의 청년실업대책 중에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청소년 직장체험프로그램은 2005년에 예산이 625억 원 중에서 433억원이 투입되어 정부위탁훈련에 이어 예산투입이 많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패스트 푸드 업체의 홀서빙 등에도 지원하는 등 단순노무직종에도 지원함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동 프로그램이 단순노무직종보다는 장기적이고 괜찮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직장체험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표 II-6> 청년실업대책(2004 이후)

(단위: 명, 억원, %)

	2004						2005. 7월 현재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총 계	221,032	235,965	106.8	5,883	5,537	94.1	245,689	187,535	76.3	6,706	3,566	53.2
○ 청년실업대책	132,278	154,889	117.1	3,521	3,360	95.4	164,513	121,124	73.6	4,451	2,256	50.7
- 청소년직장체험 프로그램	70,000	88,005	125.7	1,051	1,051	100.0	75,000	49,000	65.3	625	433	69.3
- 구인업체개척 사업	2,800	4,246	151.6	56	52	92.9	2,800	3,038	108.5	56	32	57.1
- 전문직해외취업 지원	2,500	2,832	113.3	137	137	100.0	2,000	1,884	94.2	107	71	66.4
- 기능사양성특별 훈련	27,020	24,267	89.8	453	414	91.4	26,520	24,984	94.2	439	275	62.6
- 정부위탁훈련	12,000	16,014	133.5	903	900	99.7	11,000	12,520	113.8	851	465	54.6
- 취업유망분야 훈련	13,667	16,976	124.2	410	390	95.1	17,000	13,800	81.2	428	245	57.2
- 고용안정 센터유성	-	-	-	116	116	100.0	-	-	-	72	35	48.6
- 취업지원 프로그램 구축	-	-	-	20	20	100.0	-	-	-	26	22	84.6
- 고용안정 정보망 운영	-	-	-	11	11	100.0	-	-	-	30	22	73.3
- 중장기인력수급 전망모델구축	-	-	-	14	14	100.0	-	-	-	21	14	66.7
- 종합직업체험관	-	-	-	-	-	-	-	-	-	10	1	10.0
- 지역인적자원 개발기반조성	-	-	-	-	-	-	-	-	-	37	14	37.8
- 노사협력능력 개발지원	-	-	-	-	-	-	-	-	-	2	2	100.0
- 구인구직채용 박람회	-	-	-	6	6	100.0	-	-	-	6	2	33.3
- 중소기업직업 훈련권소사업	-	-	-	208	168	81.0	-	-	-	440	296	67.3
- 중소기업고용 환경개선지원금	-	-	-	1	0	0.0	1,359	366	26.9	204	10	4.9
- 중소기업전문 인력채용장려금	-	-	-	-	-	-	542	626	115.5	78	31	39.7
- 중소기업신규업 종진출지원금	-	-	-	-	-	-	1,354	207	15.3	97	3	3.1
- 고대제전환 지원금	-	-	-	-	-	-	3,197	364	11.4	115	3	2.6
- 장기구직자고용 촉진장려금	4,291	2,549	59.4	115	62	53.9	23,741	14,335	60.4	787	283	36.0
- 뉴패러다임확산	-	-	-	20	19	95.0	-	-	-	20	13	65.0

자료: 노동부.

나. 산업자원부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실업대책은 이공계 미취업자연수,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청년무역인 양성, 지방대학 Trade Incubator 설치 등 5개 사업이 있다. 이공계 미취업자연수,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이공계 졸업자 중 미취업자 대상으로 취업지원 또는 기술재교육을 목적으로 사업으로 2005년 7월 현재 예산이 전액 소진된 상태이다.

한편, 무역인력양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청년무역인력양성 및 지방대 Trade Incubator 설치'사업은 무역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의 추진 근거는 무역인력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크게 부족할 뿐 아니라 무역인력의 최대 공급기관인 대학은 학부제 실시로 무역실무교육이 적고 이론중심교육으로 현장적응력이 낮다는 것을 이유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의 경우 지원규모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7> 산업자원부 소관 청년실업대책

(단위: 억원, 명, %)

	2004						2005. 7월 현재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청년실업 대책사업												
○ 이공계 미취업자 연수	5,760	5,760	100.0	300	300	100.0	3,000	3,120	104.0	150	150	100.0
○ 중소기업 연구인력 고용지원	711	711	100.0	100	100	100.0	511	511	100.0	80	80	100.0
○ 신기술 중소기업 인력지원	2,700	1,533	56.8	100	50	50.0	-	-	-	-	-	-
○ 청년무역인력 양성	200	193	96.5	20	20	100	190	189	99.5	18.5	18.5	100
○ 지방대 Trade Incubator 설치	1,250	1,246	99.7	12.5	12.5	100	1,250	1,250	100	12.5	12.5	100

주: 신기술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은 2005년도 예산에 미반영.
자료: 산업자원부.

다. 정보통신부

정보통신부 청년실업대책은 IT인턴십 지원사업,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IT인력 해외연수지원,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사업 등이 있다. 2004년 3,150명 계획 3,175명을 실시하였으며 예산은 1,961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다. 2005년은 목표 3,520명 7월 현재 실적치는 3,435명으로 올해 목표치에 근접해 있는 실정이다. 2005년 7월 현재 예산 집행율도 82%를 상회하고 있어 사업진행이 빠른 편이다.

청년실업대책 중에서 대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IT 인턴쉽 지원사업은 IT인력양성 SCM구축사업으로 지원하는 교과과정 개편지원, IT인턴쉽 확산지원, SCM모델 도입운영 및 교수요원 경쟁력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IT인력사업 SCM구축사업이 2004년도 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아 성과가 우수한 사업으로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IT분야 대학(원) 재학생 1인당 월 30만원의 연수보조금을 2개월 이상 연수기관에 지원하여 현실적이지 못해 사업의 지속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표 II-8> 정보통신부 소관 청년실업대책

(단위: 억원, 명, %)

	2004						2005. 7월 현재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청년실업 대책사업	3,150	3,175	100.8	1,966	1,961	99.7	3,520	3,435	97.6	2,474	2,041	82.5
○ IT인턴쉽 지원사업	350	384	109.7	6	6	100	600	600	100	10	10	100
○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	2,000	2,000	100	470	465	99	2,600	2,835	109	664	664	100
○ IT인력 해외연수지원	500	491	98.2	50	50	100	-	-	-	-	-	-
○ 해외인터넷 청년봉사단 파견	300	300	100	1,440	1,440	100	320	-	-	1,800	1,367	75.9

자료: 정보통신부.

라. 중소기업청

중기청의 청년실업대책은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중소기업 청년채용패키지 사업, 창업교육 강화, 비즈쿨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등이 있다. 2004년 중기청은 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 72,000명으로 목표로 하였으나, 실적은 127,275명으로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2005년의 경우 계획인원 12,500명이나 7월 현재 37,759명으로 목표치를 3배나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하였다.

중기청이 주관하는 대학생의 중소기업단기체험사업 및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은 인력유입인프라구축사업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인력실태조사, 청년채용패키지, 인력구조고도화 및 중소기업체험활동의 일환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체험활동사업 그 자체만으로 인력유입인프라구축사업의 집행상태 및 성과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중소기업체험활동사업 수행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 학생의 절반수준(51%)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으며 학생보다는 중소기업의 채용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9> 중기청 소관 일자리 지원사업

(단위: 억원, 명, %)

	2004						2005. 7월 현재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청년실업 대책사업	72,000	127,275	176.8	192	190.8	99.4	12,500	37,759	302.1	327	218.2	66.7
○ 대학생 중소기업 단기체험	65,000	118,370	182	40	39.4	98.5	60,000	32,603	54.3	40	29	72.5
○ 해외시장 개척요원 양성	1,000	944	94.4	85	85	100	1,000	928	92.8	85	53	62.4
○ 중소기업 청년채용 패키지	6,000	7,961	132.7	40	39.4	98.5	5,500	4,228	76.9	175	113	53.2
○ 창업교육강화	-	-	-	17	17	100	-	-	-	17	14.2	83.5
○ Biz Cool 프로그램 활성화	-	-	-	10	10	100	-	-	-	10	9	90
○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	-	-	-	21.5	21.5	100	-	-	-	21.5	11.8	53.6
○ 여성창업 활성화	-	-	-	21.5	21.5	100	-	-	-	21.5	11.8	53.6

자료: 중소기업청.

마. 교육인적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청년실업사업은 신진연구사 연구지원, 인적자원종합정보망 구축, 학교기업 육성, 전문대학생 해외 인턴십 사업 등이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사업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사업은 신진연구사 연수지원사업과 학교기업 육성사업을 들 수 있다.

이중에서 특히 신진연구사연수 지원사업은 이공계 신진 석·박사 인력에게 산·학·연 연구현장에서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론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인재 양성과 더불어 고용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이는 미취업 이공계 인력을 해소하는데 있어 단기적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국가적으로 시의적절한 사업이긴 하나, 오히려 장기적 안정적 고용을 저해하는 역효과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표 II-10> 교육인적자원부 소관 일자리 지원사업

(단위: 억원, 명, %)

	2004						2005. 7월 현재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①청년실업대책사업												
○신진연구사 연수지원	912	912	100	130	130	100	508	587	115.6	80	80	100
○인적자원종합 정보망구축	-	-	-	12.06	12.06	100	-	-	-	9	9	100
○학교기업육성	100	164	164	100	100	100	22	22	100	130	22	16.9
○전문대학생 해외인턴십	-	-	-	-	-	-	75	47	62.7	20	5	25
②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장애아 교육보조지원	2,000	1,952	97.6	39	36.8	94.8	2,250	2,250	100	77.4	38.7	50
○장애아 순회교육지원	-	-	-	-	-	-	36	36	100	9	9	100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	-	-	-	-	-	-	320	596	186.2	2.5	2.5	100
○방과후교실 보조인력	16	445	100	20	8	0.4	198	778	100	0	0	0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바.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에서는 청년실업대책사업으로 2004년까지 문화산업청년인턴 채용사업을 수행해 왔으나 2005년부터는 이를 청소년위원회로 이관 후 현재는 문화원형 창작 디지털콘텐츠화 사업을 수행 중에 있다. 올해 120억 원 지원하기로 계획되었으며 현재는 예산이 소진된 상태이다.

<표 II-11> 문화관광부소관 청년실업대책사업

(단위: 억원, 명, %)

	2004						2005. 7월 현재					
	인원			예산			인원			예산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계획	실적	비율
청년실업대책사업	3,360	2,929	87	249	244	98	600	552	92.0	120	120	100
○ 문화산업 청년인턴채용	2,640	2,240	84.8	129	124	96	*이체					
○ 문화원형창작 디지털 콘텐츠화	720	689	96	120	120	100	600	552	92.0	120	120	100

주: 2004년도 청소년육성기금 청년인턴지원(129억/2,240명)사업은 2005년도부터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청소년위원회로 이관.

자료: 문화관광부.

사. 여성부

여성부의 청년실업대책 중 여대생커리어개발지원사업은 여대생 욕구에 부응하는 대학의 여성능력개발 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체험, 기업 체험, 기업연수, 생애설계상담, 정보네트워크 구축, 리더십 강화 등 전반적인 여성커리어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5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는 대학에서 호응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제 3 장 대학생 취업준비활동 실태조사

제1절 조사 개요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는 2005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 사이에 실시되었다. 설문조사대상은 전국의 8개 4년제 종합 대학이며 그중에서 3개 대학은 서울에 소재한 대학이며, 영남 1개 대학, 호남 1개 대학, 충청 1개 대학, 경기 1개 대학, 강원 1개 대학이다. 각 대학별로 100명을 임의로 추출해 설문조사를 했으며, 각 대학은 학년별, 전공별, 성별 등에 맞추어 일정 비율에 따라 설문조사 대상자를 정했다. 인문계열 10%, 사회계열 6.5%, 상경계열 25.4%, 법과계열 8.8%, 교육계열 3.9%, 자연계열 14.0%, 공과계열 25.4%, 의과계열 0.50, 예체능계열 5.3%이다.

본 설문조사는 각 대학의 면접원이 설문조사대상 비율에 따라 조사대상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각 대학의 면접원은 그 대학에 소속된 대학생이다. 면접원은 도서관 등에서 조사대상자의 전공, 학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조사대상자를 접촉하고, 설문조사에 응해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표본추출의 편의성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이것은 본 조사의 예산이나 기간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게 감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본 설문조사는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을 개관하는데 의미가 있다. 표본의 대표성문제가 제기될 수 있지만, 대학생이 취업준비활동을 어떻게 하는지를 대학생 스스로 평가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설문조사는 조사대상이 4년제 종합대학에 한정되어 2년제 전문대학이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또한 설문조사 대상자의 전공별 분포에 있어서 상경계열이 다소 많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지만, 상경계열에 대한 관심이 크고 학부제 실시 등으로 상경계열에 복수전공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보면 응답자의 인적 사항,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대학생활에 대한 평가,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평가, 교육관 및 취업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적 사항에는 성, 군복무 여부, 학년, 전공분야, 가계의 소득, 한 달간 지출액 및 용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는 취업문제에 대한 인식, 대학교육과 취업준비와의 관계, 학업 및 취업준비활동, 학원 등 사교육, 학점, 영어 공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생활에 대한 평가는 진로상담, 아르바이트활동, 동아리활동, 휴학, 취업 때까지 걸리는 기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업준비활동에는 졸업 후 진로, 희망 직장의 선택,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 취업준비의 애로사항,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대학의 역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관 및 취업관은 전공, 교과목, 교수학습방식, 직장의 선택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절 응답자의 인적사항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799명이 응답하였다. <표 III-1>에서 보듯이, 응답자의 57.7%는 남성이고, 42.3%는 여성이다.

<표 III-1> 성별 특성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남	461	57.7
여	338	42.3
합계	799	100.0

남성 응답자의 군복무별 구성은 <표 III-2>에서 보듯이 남학생 응답자 403명중 제대한 사람은 65%, 입대 예정인 사람이 34%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2> 군복무유무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제대	265	65.27
예정	141	34.73
합계	403	100.00

응답자의 학년 구성은 <표 III-3>에서 보듯이, 3학년 34.17%, 4학년 31.16%, 2학년 21.98%, 1학년 12.69%이다.

<표 III-3> 학년구성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1학년	101	12.69
2학년	175	21.98
3학년	272	34.17
4학년	248	31.16
합계	796	100.00

응답자의 전공분야 구성은 <표 III-4>에서 보듯이 상경 25.38%, 공과 25.38%, 자연 14%, 인문 10.38%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4> 전공분야구성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인문	83	10.38
사회	52	6.5
법과	70	8.75
상경	203	25.38
자연	112	14.00
공과	203	25.38
교육	31	3.88
의학	4	0.50
예체능	42	5.25
합계	800	100.00

응답자 가정의 소득 수준분포는 <표 III-5>에서 보듯이 150~300만원이 41.7%로 가장 많고, 300~450만원이 23.04%, 460~600만원이 10.94%, 150만 원 이하가 19.99%, 600만 원 이상은 7.34%이다.

<표 III-5> 가계소득수준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150만원미만	132	16.99
150~300만원	324	41.70
300~450만원	179	23.04
450~600만원	85	10.94
600만원 이상	57	7.34
합계	777	100.00

응답자의 월평균 지출액 분포는 <표 III-6>에서 알 수 있듯이 25~50만원 미만이 60.35%로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 25만원 미만이 23.24%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6> 지출총액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25만원 미만	186	23.24
25~50만원	481	60.35
50~75만원	92	11.54
75~100만원	22	2.76
100만원 이상	16	2.01
합계	797	100.00

응답자의 용돈 조달은 <표 III-7>에서 보듯이 부모님이 모두 주신다가 59.15%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본인이 모두 버는 경우는 8.4%로 나타났다.

<표 III-7> 용돈조달 유형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부모님이 모두 주신다	472	59.15
일부만 부모님이 주신다	259	32.46
본인이 모두 번다	67	8.40
합계	798	100.00

제3절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학교육이다.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에 필요한 지식을 얻는다는 점 이외에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이 노동시장으로 이동에 대비해 대학에서 어

떠한 교육을 받고 있으며 그 교육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은 대학생의 취업능력을 제고하는데 일차적인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동시장의 문제와 대학교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전공, 학년, 성 등 대학생의 인적속성을 설명하는 변수에 따라 살펴보기로 한다.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취업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II-8>에서 보듯이,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3.2% 약간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5.5%를 차지하고 있다.

<표 III-8> 대학생의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매우 그렇다	421	53.16
약간 그렇다	281	35.48
보통이다	70	8.84
약간 아니다	11	1.39
전혀 아니다	9	1.14
합계	792	100.00

학년별로 보면 고학년이 될 수록 대학생의 취업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학년이 6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학년이 42.8%로 나타났다.

<표 III-9> 대학생의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학년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합
1학년	52(51.5)	39(38.4)	9(8.9)	1(1.0)	0(0.0)	101(100.0)
2학년	74(42.8)	73(42.4)	19(11.0)	4(2.3)	3(1.7)	173(100.0)
3학년	140(52.0)	97(36.1)	27(10.0)	4(1.5)	1(0.4)	269(100.0)
4학년	151(61.6)	72(29.4)	15(6.1)	2(0.8)	5(2.0)	245(100.0)
합계	417(52.9)	281(35.7)	70(8.9)	11(1.4)	9(1.1)	788(100.0)

대학생의 취업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정도는 전공에 따라 다르다. 매우 심각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교육계열이 73.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법과 계열(61.8%), 인문계열(61.5%)의 순으로 높다. 반면, 자연계열은 42.9%로 그 비율이 가장 낮으며, 그 다음으로 공과계열(49%)로 나타났다.

교육계열의 대학생이 취업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는 점은 흥미롭다. 이것은 교육계열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열은 교사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교원의 채용규모가 사실상 정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학년에 상관없이 취업 문제를 걱정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즉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교사가 되기로 작정한 대학생이 많기 때문에 다른 전공에 비해서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도 취업 문제를 걱정하는 비율이 높아 취업문제의 심각성을 느끼는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표 III-10> 대학생의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계열별)

(단위: 명,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인문	응답자수	51	26	6	0	0	83
	백분율	61.5	31.3	7.2	0	0	100.0
사회	응답자수	27	19	6	0	0	52
	백분율	51.9	36.5	11.5	0	0	100.0
법과	응답자수	42	18	6	1	1	68
	백분율	61.8	26.5	8.8	1.5	1.5	100.0
상경	응답자수	109	74	13	0	5	201
	백분율	54.2	36.82	6.5	0	2.5	100.0
자연	응답자수	48	48	9	6	1	112
	백분율	42.9	42.9	8	5.4	0.9	100.0
공과	응답자수	98	75	23	4	0	200
	백분율	49	37.5	11.5	2	0	100.0
교육	응답자수	22	6	2	0	0	30
	백분율	73.3	20	6.7	0	0	100.0
의학	응답자수	2	1	0	0	1	4
	백분율	50	25	0	0	25	100.0
예체능	응답자수	22	14	5	0	1	42
	백분율	52.4	33.3	11.9	0	2.4	100.0
총합	응답자수	421	281	70	11	9	792
	백분율	53.2	35.5	8.8	1.4	1.1	100.0

취업문제의 심각성을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서 크게 느끼고 있으나 그 차이는 작다. 남학생의 51.5%, 여학생의 55.5%는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통상적으로 여학생이 취업이 더욱 어렵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지만 그 차이는 예상보다 작다. 이러한 점은 다른 설문조사 항목에서 나타나게 된다.

<표 III-11> 현재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

(단위: 명, %)

	남	여	합계
매우 그렇다	234(51.5)	187(55.5)	421(53.2)
약간 그렇다	163(35.9)	117(34.7)	280(35.5)
보통이다	42(9.3)	28(8.3)	70(8.8)
약간 아니다	10(2.2)	1(0.1)	11(1.4)
전혀 아니다	5(1.1)	4(0.5)	9(1.1)
합계	454(100.0)	337(100.0)	791(100.0)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취업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표 III-12>에서 보듯이,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취업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는 응답자 비율은 50.8%인데 비해서 3.5 미만인 경우 그 비율은 59.0%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대학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일수록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III-12>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학점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3.5미만	243(50.8)	184(39)	38(7.9)	8(1.7)	5(1.0)	478(100.0)
3.5-4.0	116(49.6)	65(27.8)	21(9.0)	3(1.3)	2(0.9)	234(100.0)
4.0이상	36(59.0)	17(27.9)	6(9.8)	0(0.0)	2(0.3)	61(100.0)
합계	395(53.0)	266(35.7)	65(8.7)	11(1.5)	9(1.2)	746(100.0)

응답자의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취업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다. 150만원 미만의 경우 매우 심각하다는 평가가 58.4%를 차지하고 있으나 600만 원 이상인 경우 33.9%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저소득계층의 대학생일수록 취업에 대한 압박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13> 취업문제에 대한 심각성 인식(가계소득별)

(단위: 명,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150만원 미만	76	43	8	1	2	130
	58.4	33.1	6.2	0.8	1.5	100.0
150-300만원	184	109	28	1	1	323
	57	33.8	8.7	0.3	0.3	100.0
300-450만원	93	63	15	5	0	176
	52.8	35.8	8.5	2.8	0	100.0
450-600만원	40	37	5	3	0	85
	47.1	43.5	5.9	3.5	0	100.0
600만원 이상	19	21	9	1	6	56
	33.9	37.5	16.1	1.8	10.7	100.0
총 합	412	273	65	11	9	770
	53.5	35.5	8.4	1.4	1.2	100.0

그러나 대학생 스스로 본인이 하고 있는 취업준비가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있다. <표 III-14>에서 보듯이, 대학생 스스로 본인이 하고 있는 취업준비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점을 느끼는 비율은 24.4%, 어느 정도라도 문제점을 느끼는 비율은 29.1%를 차지하고 있다. 전혀 또는 어느 정도라도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는 비율은 각각 4.1%와 12.1%에 지나지 않는다.

<표 III-14> 대학생 스스로의 취업준비노력 만족정도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매우 그렇다	32	4.05
약간 그렇다	96	12.14
보통이다	240	30.34
약간 아니다	230	29.08
전혀 아니다	193	24.40
합계	871	100.00

취업준비에 대한 만족도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만족한다는 비율은 남학생이 19.0%로 여학생의 경우(12.6%)보다 높고 반면 만족하지 못한다는 비율은 여학생이 57.7%로 남학생의 경우(50.3%) 보다 높다.

이것은 취업준비에 필요한 인프라가 여학생보다는 남학생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예를 들면, 여학생에게 적합한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반면 대학교육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표 III-15> 대학생 스스로의 취업준비노력 만족정도(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매우 그렇다	23(5.1)	9(2.7)	32(4.1)
약간 그렇다	63(13.9)	33(9.9)	96(12.2)
보통이다	140(30.8)	100(29.9)	240(30.4)
약간 아니다	126(27.7)	103(30.8)	229(29.0)
전혀 아니다	103(22.6)	90(26.9)	193(24.4)
합계	455(100.0)	335(100.0)	790(100.0)

학년이 낮을수록 자신의 취업준비가 문제가 있다는 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취업준비노력에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아니다 라는 응답비율은 1학년이 38.6%로 가장 높고 4학년이 20.1%로 가장 낮았다.

이것은 대학의 진로지도가 부실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대학생은 진로문제 등을 대학의 지원 등이 없이 혼자서 고민하고 있으며, 대학에 입학하면 무엇을 공부하고 어떻게 생활하며 졸업 후 어떤 진로를 밟을 수 있는 지 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표 III-16> 대학생 스스로의 취업준비노력 만족정도(학년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합
1학년	2(2)	4(4.0)	23(22.5)	33(32.7)	39(38.6)	101(100.0)
2학년	3(1.7)	12(6.9)	61(35.3)	53(30.6)	44(25.4)	173(100.0)
3학년	9(3.4)	45(16.7)	73(27.1)	81(30.1)	61(22.7)	269(100.0)
4학년	18(7.4)	34(13.9)	83(34.0)	60(24.6)	49(20.1)	244(100.0)
총 합	32(4.1)	95(12.1)	240(30.5)	227(28.8)	193(24.5)	787(100.0)

학점이 높을수록 본인의 취업준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7>에서 보듯이, 취업준비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학점이 4.0이상인 경우 14.5%인데 비해서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그 비율은 2.5%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은 취업을 준비하는데 학점이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I-17> 스스로의 취업준비에 노력 만족도(학점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3.5미만	12(2.5)	48(10.1)	144(30.2)	146(30.6)	127(26.6)	477(100.0)
3.5-4.0	10(4.9)	35(17.0)	69(9.3)	58(28.2)	34(4.6)	206(100.0)
4.0이상	9(14.5)	12(19.4)	16(25.8)	12(19.4)	13(21.0)	62(100.0)
합계	31(4.2)	95(12.8)	229(30.7)	216(29.0)	174(23.4)	745(100.0)

토익점수가 높을수록 본인의 취업준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18>에서 보듯이, 취업준비에 매우 만족한다는 비율은 토익점수가 600점 미만인 경우 3.0%인데 비해서 800점 이상인 경우는 12.7%를 차지하였다. 추가 이것은 영어실력이 취업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I-18> 스스로의 취업준비에 노력 만족도(토익점수별)

(단위: 명, %)

토익점수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600점미만	13(3.0)	34(7.8)	123(28.2)	142(32.6)	123(28.2)	436(100.0)
600-800점	9(3.7)	45(18.6)	84(35.0)	60(24.8)	44(18.1)	242(100.0)
800점 이상	9(12.7)	16(22.5)	21(30.0)	14(19.7)	11(15.5)	71(100.0)
합계	32(4.3)	95(12.7)	228(30.4)	216(28.8)	178(23.4)	749(100.0)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의 문제에 대해서 <표 III-20>에서 보듯이 매우 그렇다가 34.9% 약간 그렇다가 29.0%로서, 대학생 응답자의 64% 정도는 대학 교육이 취업과 보다 직결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는 대학교육의 방향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교육이 학문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아니면 기초적인 수준이지만 전문인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하는가에 대한 대학생의 생각은 후자에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대학교육은 쓸모가 없다는 산업계 등의 비판을 대학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20> 취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역할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매우 그렇다	276	34.89
약간 그렇다	229	28.95
보통이다	178	22.50
약간 아니다	82	10.37
전혀 아니다	26	3.29
합계	871	100.00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 학점이 높을수록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커진다.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그 비율은 34.7%인데 비해서 4.0이상인 경우 42.6%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에서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일수록 대학교육이 보다 취업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III-21> 취업에 대한 대학교육의 역할(학점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3.5미만	166(34.7)	141(29.4)	103(21.5)	50(10.4)	19(4.0)	476(100.0)
3.5-4.0	66(32.0)	58(28.2)	51(24.8)	26(12.6)	5(2.4)	206(100.0)
4.0이상	26(42.6)	18(29.5)	13(21.3)	2(0.3)	2(0.3)	61(100.0)
합계	258(34.6)	217(29.1)	167(22.4)	78(10.5)	26(3.5)	746(100.0)

실제로 대학교육이 취업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보는가에 대해서 응답자의 3.3%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22.5%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표 III-22> 참조).

<표 III-22>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크게 도움된다	62	7.83
약간 도움된다	262	33.08
보통이다	264	33.33
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178	22.47
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26	3.28
합계	792	100.00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응답을 전공분야 별로 비교하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이 각각 35.4%와 48.3%로 가장 많다. 그러나 도움이 된다는 응답을 고려하면 자연계열은 응답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인문계열의 대학생이 보다 심각함을 느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교육계열과 법과계열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표 III-25>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계열별)

(단위: 명,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인문	응답자수	4	16	33	28	1	82
	백분율	4.9	19.5	40.2	34.2	1.2	100.0
사회	응답자수	2	13	20	13	4	52
	백분율	3.9	25	38.46	25	7.7	100.0
법과	응답자수	6	28	15	17	2	68
	백분율	8.8	41.2	22.1	25	2.9	100.0
상경	응답자수	15	73	73	35	6	202
	백분율	7.4	36.1	36.1	17.3	3	100.0
자연	응답자수	4	32	33	36	7	112
	백분율	3.6	28.6	29.46	32.14	6.25	100.0
공과	응답자수	18	74	69	35	5	201
	백분율	9	36.8	34.3	17.4	2.5	100.0
교육	응답자수	10	16	9	3	1	30
	백분율	3.3	53.3	30	10	3.3	100.0
의학	응답자수	3	0	1	0	0	4
	백분율	75	0	25	0	0	100.0
예체능	응답자수	9	10	11	11	0	41
	백분율	22	24.4	26.8	26.8	0	100.0
총합	응답자수	62	262	264	178	26	792
	백분율	7.8	33.1	33.3	22.5	3.3	100.0

학점이 높을수록 대학교육이 취업준비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다. <표 III-26>에서 보듯이,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준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점이 3.5 미만인 경우 5.8%인데 비해서 4.0이상인 경우 11.3%이다.

<표 III-26> 대학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정도(학점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합계
3.5미만	38(5.8)	158(24.0)	165(25.1)	97(14.7)	20(3.0)	658(100.0)
3.5-4.0	13(6.3)	67(32.4)	68(32.9)	57(27.5)	2(1.0)	207(100.0)
4.0이상	7(11.3)	21(33.9)	15(24.2)	16(25.8)	3(4.9)	62(100.0)
합계	58(7.8)	246(32.9)	248(33.2)	170(22.8)	25(3.4)	747(100.0)

대학생의 학교 수업 이외에 일일 학업시간은 <표 III-27>에서 보듯이, 도서관/집에서 하루 평균 2.6시간, 학원 등에서 2.2시간, 동아리 등에서 1.8시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이 학원 등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27> 대학생의 학교수업을 제외한 일일 평균 학업 시간

(단위: 시간)

	평균시간
도서관/집	2.6
학원 등	2.2
동아리 등	1.8

학교수업 이외에 일일 학업시간은 학점이 높을수록 길다.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학점이 높을수록 길지만, 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학점이 낮을수록 길다. <표 III-28>에서 보듯이, 도서관이나 집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2.64시간이지만 4.0이상인 경우

3.37시간이다. 학원 등에서 공부하는 시간은 전자의 경우 4.71시간인데 비해서 후자의 경우 2.45시간이다. 이것은 학점이 학교수업에 대한 충실도와 직결된다는 점을 의미하고 있다.

<표 III-28> 대학생의 학교수업을 제외한 일일 평균 학업 시간(학점별)

(단위: 시간)

	3.5점 미만	3.5-4.0점미만	4.0점 이상
도서관/집	2.64	2.80	3.37
학원 등	4.71	2.12	2.45
동아리 등	1.28	1.92	2.00

학년별로 보면 고학년으로 갈수록 도서관/집 등에서 학업시간과 취업준비를 위한 시간이 길어지고 반면 학원 등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III-29> 대학생의 학교수업을 제외한 일일 평균 학업 시간(학년별)

(단위: 시간)

	도서관/집	학원 등	동아리 등
1학년	1.96	2.80	2.13
2학년	2.34	2.85	1.56
3학년	2.65	2.00	2.14
4학년	3.17	2.15	1.79
전 체	2.67	2.28	1.88

취업을 위한 학습시간은 평균 2.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취업준비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30> 일일 평균 학업 시간 중 취업준비 시간(학점별)

(단위: 평균시간)

	하루 평균
3.5미만	2.06
3.5-4.0	2.30
4.0이상	2.98
합계	2.31

취업준비를 위한 학습시간을 전공별로 보면 사회계열,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순수학문 분야의 대학생들은 특정 직업과의 직접적 관련성이 다른 전공 분야보다 취업준비를 하는데 시간을 적게 할애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31> 일일 평균 학업 시간 중 취업준비 시간(계열별)

(단위: 평균시간)

전공분야별	하루 평균
인문	1.63
사회	1.61
법과	2.29
상경	2.44
자연	1.85
공과	2.50
교육	2.37
의학	10.00
예체능	2.76
전체	2.29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시간은 군 복무를 마친 학생이 긴 것으로 나타났다. 군 제대자는 2.6시간 반면, 군 입대 예정자는 2시간으로 제대자가 예정자보다 0.6시간 더 취업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2> 취업공부 일일 평균시간

(단위: 평균시간)

	제대	예정	일일평균
하루평균	2.6	2.0	2.3

대학생들이 본격적으로 취업준비를 하는 시기는 3학년이라고 볼 수 있다. 취업준비를 위해 공부하는 시간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길어지는데, 학년별로 보면 1학년 1.61시간, 2학년 1.59시간이다가 3학년은 2.48시간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3> 일일 평균 학업 시간 중 취업준비위한 할애 시간(학년별)

(단위: 평균시간)

	하루 평균
1 학 년	1.61
2 학 년	1.59
3 학 년	2.48
4 학 년	2.56
전 체	2.28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준비시간도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이 4.0 이상인 경우 취업준비를 위한 학업시간은 2.98시간인데 비해서 학점이 3.5 미만인 경우 2.06시간으로 나타났다.

<표 III-34> 일일 평균 학업 시간 중 취업준비위한 할애 시간(학점별)

(단위: 평균시간)

	하루 평균
3.5미만	2.06
3.5-4.0	2.30
4.0이상	2.98
합계	2.31

취업을 위해 학원 등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학생의 비율은 18.8%로 나타났다. 약 1/5의 학생들이 학원 등에서 취업을 위한 공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35>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의 교육여부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하고 있다	149	18.84
하고 있지 않다	642	81.16
합계	791	100.00

취업준비를 위해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서 4학년이 24.9%, 3학년이 3.4%이고 1학년 9.9%, 2학년 8.7%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3학년부터 취업준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 고학년일수록 취업준비와 직결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36>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의 교육여부(학년별)

(단위: 명, %)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총합
1학년	10(9.9)	91(90.1)	101(100.0)
2학년	15(8.7)	157(91.2)	172(100.0)
3학년	63(23.4)	206(76.6)	269(100.0)
4학년	61(24.9)	184(75.1)	245(100.0)
총 합	149(18.9)	638(81.1)	787(100.0)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준비를 도와주는 학원에 다니는 비율이 높아진다.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그 비율은 16.5%인데 비해서 4.0이상인 경우 30.7%로 올라간다.

이것은 학점을 위해서는 학업에 충실해야 하고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로 학원 등 사교육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학점이 높은 학생일수록 학업과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로 이중적인 압박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37> 취업준비를 위한 학원 등의 교육여부(학점별)

(단위: 명, %)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합계
3.5미만	79(16.5)	400(83.5)	479(100.0)
3.5-4.0	49(23.9)	156(76.1)	205(100.0)
4.0이상	19(30.7)	43(69.3)	62(100.0)
합계	147(19.7)	599(80.3)	746(100.0)

학교 수업을 제외한 도서관과 집에서의 일일 평균 학업시간은 군 체대자는 3.2시간 반면, 입대 예정자는 2.1시간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남학생의 경우 군대를 마친 후 취업준비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38> 대학생의 학교수업을 제외한 일일 평균 학업 시간

(병역의무이행 여부별)

(단위: 시간)

	체대	예정	평균시간
도서관/집	3.2	2.1	1.9
학원 등	2.1	2.0	1.3
동아리 등	1.9	1.7	1.7

대학생이 다니는 학원의 종류를 보면 외국어학원이 가장 많다. 응답생의 15%는 외국어 학원을 다니고 있고, 그 다음으로 자격증 준비학원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II-39> 다니는 학원의 종류(복수 응답가능)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외국어학원	123	15.38
자격증준비학원	57	7.13
컴퓨터등 기능시험준비학원	38	4.75
공무원(공기업)시험준비학원	40	5.00
기타	42	5.25
합계	800	100.00

대학생이 학원을 다니는 목적이 학년에 따라 다르다. 저학년에는 외국어 학원을 다니는 반면 학년이 높아질수록 자격증과 공무원(공기업)시험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

<표 III-40> 다니는 학원의 종류(학년별)*

(단위: 명, %)

다니는 학원의 종류	학년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외국어	16(61.5)	14(37.8)	48(52.7)	42(45.2)
자격증	0(0.0)	11(29.7)	22(24.1)	24(25.8)
컴퓨터 등 기능시험	5(19.2)	7(18.9)	14(15.4)	12(12.9)
공무원(공기업)시험	1(3.8)	3(8.1)	18(19.8)	18(19.4)
기타	6(23.0)	5(13.5)	15(16.5)	6(6.2)
합계	26(100.0)	37(100.0)	91(100.0)	93(100.0)

* 복수응답가능

월 평균 학원비의 분포를 보면 10만원 미만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10~20만원의 비율은 28.1%를 차지하였다. 대학생들의 사교육비도 지출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I-41> 월 평균 사교육비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10만원 미만	106	45.89
10~20만원	65	28.14
20~30만원	46	19.91
30~40만원	10	4.33
100만원	4	1.73
합계	231	100.00

학점이 높을수록 월 평균 학원비 부담도 많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월 10만원 미만의 경우 3.5점 미만은 47.2%인데 비해서 4.0이상은 30.8%이다. 20~30만원의 경우 3.5점미만은 18.19%인데 비해서 4.0점이상은 36.4%이다.

<표 III-42> 월 평균 학원비 부담 정도(학점별)

(단위: 명, %)

	10만원 미만	10~20만원 미만	20~30만원 미만	30~40만원 미만	40~50만원 미만	총합
3.5미만	60(47.2)	37(29.1)	23(18.1)	5(3.9)	2(1.6)	127(100.0)
3.5-4.0	34(46.6)	23(31.5)	14(19.2)	2(0.9)	0(0.0)	73(100.0)
4.0이상	8(30.8)	4(15.4)	9(34.6)	31(11.5)	2(7.7)	26(100.0)
합계	102(45.1)	64(28.3)	46(20.4)	10(4.4)	4(1.8)	226(100.0)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생의 학점분포를 보면 3.0-3.5사이가 39.3%로 가장 많다.

<표 III-43> 현재 평균학점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2.5점 미만	36	4.81
2.5~3.0	149	19.92
3.0~3.5	294	39.30
3.5~4.0	207	27.67
4.0점 이상	62	8.29
합계	748	100.00

학점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이 2.5점 미만의 경우 남학생은 6.5%이나 여학생은 2.2%에 지나지 않고, 4.0 이상의 경우 그 비율이 역전되어 남학생은 6.5%인데 비해 여학생은 10.8%를 차지하였다.

<표 III-44> 현재 평균학점(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2.5점 미만	28(6.5)	7(2.2)	36(4.8)
2.5~3.0	103(23.8)	46(14.7)	149(19.9)
3.0~3.5	180(41.6)	114(36.3)	294(39.3)
3.5~4.0	94(21.7)	113(36)	207(27.7)
4.0점 이상	28(6.5)	34(10.8)	62(8.3)
합계	433(100.0)	314(100.0)	748(100.0)

최근 대학생들 사이에 취업 필수요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TOEIC점수를 보면, 고학년이 될 수록 TOEIC점수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00점 미만의 비율이 4학년이 가장 낮고 반면 900점 이상의 비율은 가장 높다.

<표 III-45> TOEIC점수(학년별)

(단위: 명, %)

	500점 미만	500-600점 미만	600-700점 미만	700-800점 미만	800-900점 미만	900점 이상	총합
1학년	36(40.9)	22(25.0)	17(19.3)	8(9.1)	3(3.4)	2(2.3)	88(100.0)
2학년	64(37.4)	53(31)	31(18.1)	16(9.4)	4(2.3)	3(1.8)	171(100.0)
3학년	96(37.2)	50(19.4)	46(17.8)	38(14.7)	23(8.9)	5(1.9)	258(100.0)
4학년	69(29.5)	50(21.4)	43(18.4)	41(17.5)	22(9.4)	9(3.9)	234(100.0)
총합	265(35.3)	175(23.3)	137(18.2)	103(13.7)	52(6.9)	19(2.5)	751(100.0)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생의 TOEIC점수의 분포를 보면 500점미만이 가장 많다. 이것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영어에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46> TOEIC점수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500점 미만	265	35.10
500~600점	176	23.31
600~700점	137	18.15
700~800점	106	14.04
800~900점	52	6.89
900점 이상	19	2.52
합계	755	100.00

학년이 올라갈수록 토익점수도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800점 이상의 비율은 1학년은 0.7%인데 비해서 4학년은 13.3%로 급증한다. 이것은 한국의 대학생들이 대학에 다니면서 영어 공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47> 학년별 토익점수별 분포

	600점 이하	600-800 점	800점이상	총합
1학년	58(65.9)	25(28.4)	5(0.7)	88(100.0)
2학년	117(68.4)	47(27.5)	7(4.1)	171(100.0)
3학년	146(56.6)	84(32.6)	28(10.9)	258(100.0)
4학년	119(50.9)	84(35.9)	31(13.3)	234(100.0)
총합	440(58.6)	240(32.0)	71(9.5)	751(100.0)

제4절 대학생활에 대한 평가

대학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활동은 대학교육 뿐 아니라 교육이외의 활동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교육이외의 활동은 대학생 스스로의 선택에 좌우된다. 대학생의 취업능력은 교육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외에도 진로에 대한 정보획득,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 대인관계 등에 좌우된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생이 학업이외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며 진로설계에 필요한 정보를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획득하는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대학생이 취업 문제를 심각하게 느끼지만 진로상담을 하는 경우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생의 20%는 <표 III-48>에서 보듯이 진로 상담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60.7%는 가끔 진로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상담을 한 적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는 20.5%에 달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대학이 대학생의 진로상담 등 취업준비를 위한 지원제도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48> 진로 상담 경험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자주 했다	150	18.84
가끔 했다	483	60.68
한 적이 없다	163	20.48
합계	796	100.00

진로 상담에 대해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적극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로 상담을 한 적이 없다는 응답은 남학생은 24.7%이고 반면, 여학생은 14.8%로 나타났다.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여학생이 22.3%로 남학생보다 많았다. 이것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크다는 점을 확인해주고 있다.

<표 III-49> 진로 상담 경험(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자주 했다	75(16.4)	75(22.3)	150(18.8)
가끔 했다	270(59.0)	212(62.9)	482(60.6)
한 적이 없다	113(24.7)	50(14.8)	163(20.5)
합계	458(100.0)	337(100.0)	795(100.0)

고학년이 될 수록 진로 상담을 한 적이 없다는 비율이 작아지지만 그 차이는 크다고 할 수 없다. 이것은 진로상담이 학생들에게 맡겨져 있고 대학차원의 지원이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50> 진로 상담 경험(학년별)

(단위: 명, %)

	자주했다	가끔 했다	한 적이 없다	총합
1학년	22(21.8)	51(55.5)	28(27.7)	101(100.0)
2학년	21(12.1)	116(66.7)	37(21.2)	174(100.0)
3학년	54(20.0)	160(59.3)	56(20.7)	270(100.0)
4학년	53(21.5)	152(61.5)	42(17.0)	247(100.0)
총합	150(18.9)	479(60.5)	163(20.6)	792(100.0)

진로상담이 부실하지만 그 정도는 대학생의 자세에 따라 다르다. 학점이 높을수록 진로상담을 한 경험이 자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진로상담을 자주했다는 비율이 14.6%인데 비해서 4.0이상인 경우 그 비율은 33.9%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진로상담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의 취업지원체제 구축도 시급하지만 대학생들의 진로상담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51> 진로 상담 경험(학점별)

(단위: 명, %)

	자주했다	가끔했다	한적 없다	합계
3.5미만	70(14.6)	303(63.4)	105(22.0)	478(100.0)
3.5-4.0	46(22.2)	127(61.4)	34(4.6)	207(100.0)
4.0이상	21(33.9)	32(51.6)	9(14.5)	62(100.0)
합계	137(18.3)	462(61.9)	148(19.8)	747(100.0)

대학생이 진로상담을 하는 경우 주된 상대는 자신의 인맥과 관련된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진로 상담의 상대는 <표 III-52>에서 보듯이, 재학 중인 선배/친구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졸업한 사회선배와 가족친지가 각각 19.7%와 18.2%이다. 반면 대학의 교수는 5.5%, 대학의 취업지원 직원은 0.8%에 지나지 않았다.

진로 상담의 경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졸업한 사회선배의 비중이 높고 여학생의 경우 교수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취약하며 대학 등을 중심으로 한 공적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52> 상담경로(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재학 중인 선배/친구	172(47.1)	156(53.2)	328(49.9)
졸업한 사회선배	87(23.8)	43(14.7)	130(19.7)
가족/친지	63(17.3)	57(19.5)	120(18.2)
교수	14(3.8)	22(7.5)	36(5.5)
대학의 취업지원 직원	5(1.4)	0(0.0)	5(0.8)
대학외부의 전문가	12(3.3)	11(3.8)	23(3.5)
기타	12(3.3)	4(1.4)	16(2.4)
합계	365(100.0)	293(100.0)	658(100.0)

진로 상담의 상대는 학년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1학년은 가족과 친지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44.7%이다. 반면 4학년은 졸업한 사회 선배에게 상담하는 경우가 44.62%이고, 교수와 상담과 대학 바깥의 전문가와 상담 비중도 저학년에 비해서 많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대학생의 인적 네트워크가 넓어지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대학 선배 등에게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 입학 때부터 진로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대학생이 관심 직업 분야의 전문가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53> 상담경로(학년별)

(단위: 명, %)

	재학중인 선배/친구	졸업한 사회선배	가족/친 지	교수	대학의 취업지원 직원	대학 바깥의 전문가	기타	총합
1학년	34(44.7)	4(5.3)	34(44.7)	0(0.0)	0(0.0)	1(1.3)	3(4.0)	76(100.0)
2학년	70(49.3)	19(13.4)	39(27.5)	6(4.2)	1(0.7)	3(2.1)	4(2.8)	142(100.0)
3학년	127(56.7)	49(21.9)	24(10.7)	9(4.0)	2(0.9)	6(2.7)	7(3.1)	224(100.0)
4학년	96(45.1)	58(44.6)	21(9.9)	21(9.9)	2(0.9)	13(6.1)	2(0.9)	213(100.0)
총합	327(49.9)	130(19.9)	118(18.0)	36(5.5)	5(0.8)	23(3.5)	16(2.4)	655(100.0)

진로 상담의 경로가 응답자의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친지의 비중이 낮고 반면 재학 중인 선배/친구와 졸업한 사회선배의 비중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III-54> 상담경로(소득수준별)

(단위: 명, %)

소득 수준별	재학중인 선배/ 친구	졸업한 사회 선배	가족/ 친지	교수	대학의 취업지원 직원	대학 바깥의 전문가	기타	총합
150만원 미만	50	24	14	9	1	3	1	102
	49	23.5	13.7	8.8	1	2.9	1	100.0
150~300 만원	147	54	43	11	2	8	4	269
	54.7	20.1	20	4.1	0.7	3	1.5	100.0
300~450 만원	71	25	34	6	1	5	4	146
	48.6	17.1	23.3	4.1	0.7	3.4	2.7	100.0
450~600 만원	33	16	15	4	0	5	3	76
	43.4	21.1	19.7	5.3	0.00	6.58	4	100.0
600만원 이상	16	7	13	5	0	2	4	47
	34	14.9	27.7	10.6	0	4.26	8.5	100.0
총합	317	126	119	35	4	23	16	640
	49.5	19.7	18.6	5.5	0.6	3.6	2.5	100.0

동아리활동을 하는 응답자의 대다수는 <표 III-55>에서 보듯이 취미관련 동아리 활동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공이나, 영어, 자격증 등 취업과 관련성이 깊은 동아리 활동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의 동아리활동이 학생들의 관심과 괴리되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대학이 학생들의 관심이 큰 취업문제에 관련된 동아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55> 동아리·학회 활동의 종류(유형)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전공관련	130	16.62
취미	206	26.34
영어	53	6.78
자격증	13	1.66
기타	77	9.85
아무것도 안 함	303	38.75
합계	782	100.00

한국의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대학생의 68.9%는 <표 III-56>에서 보듯이 지난 1년 동안 1달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III-56> 지난 1년 동안 1달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있다	540	68.88
없다	244	31.12
합계	784	100.00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은 월 평균 69시간이며 년 간 6개월 정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64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표 III-57>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과 소득

(단위: 시간, 개월, 만원)

	평균
월(시간)평균	69.2시간
년(개월)평균	6개월
월소득평균	64.49만원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은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 월 평균 시간은 76시간인데 여학생은 56.9시간으로 조사되었다. 아르바이트의 필요성이 남학생과 여학생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이것은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적합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58>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과 소득(성별)

(단위: 시간, 개월, 만원)

	남	여	평균
월(시간)평균	76.22	56.92	69.3시간
년(개월)평균	5.67	6.63	6.06개월
월소득평균	73.87	52.21	64.8만원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아르바이트를 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150만원 미만인 경우 월 평균 75시간인데 600만원 이상인 경우 42시간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대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학비의 증가 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59> 아르바이트 참여 시간과 소득

(단위: 시간, 개월, 만원)

	월(시간)평균	년(개월)평균	소득평균
150만원미만	74.95	6.64	67.19
150~300만원	74.89	6.03	60.51
300~450만원	75.14	5.78	65.50
450~600만원	41.55	6.22	61.10
600만원이상	42.35	5.52	90.30
전체	69.02	6.06	64.87

학점이 높을수록 아르바이트를 작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1달 이상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은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71.1%이지만 4.0 이상인 경우 54.8%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학업에 영향을 주는 정도로 부담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II-60> 지난 1년 동안 1달 이상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학점별)

(단위: 명, %)

	있다	없다	합계
3.5미만	335(71.1)	136(28.9)	471(100.0)
3.5-4.0	144(71.3)	58(28.7)	202(100.0)
4.0이상	34(54.8)	28(45.2)	62(100.0)
합계	513(69.8)	222(30.2)	735(100.0)

응답자들이 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의 종류를 보면 <표 III-61>에서 보듯이 과외가 차지하는 비율이 25.6%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편의점이나 식당이 22.8%, 일반회사가 16.0%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취업준비와 연계된 경우는 작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III-61> 아르바이트의 종류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과외	144	25.62
편의점이나 식당	128	22.78
일반회사	90	16.01
기업지원	10	1.78
대학	42	7.47
기타	148	26.33
합계	562	100.00

남학생의 경우 군 제대 이후와 이전의 아르바이트 성향이 차이가 난다. 군 제대자는 일반회사가 24.1%로 가장 높고 편의점이나 식당은 14.4%인 반면, 군 입대 예정자는 편의점이나 식당이 24.5%, 일반회사가 12.8%이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군 제대 후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회사로서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정식 취업 등을 요구하는 등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III-62> 아르바이트의 종류(병역의무수행 여부별)

(단위: 명, %)

	제대	예정	합계
과외	36(18.5)	27(28.7)	63(21.8)
편의점이나 식당	28(14.4)	23(24.5)	51(17.7)
일반회사	47(24.1)	12(12.8)	59(20.4)
기업지원	5(2.6)	3(3.2)	8(2.8)
대학	15(7.7)	6(6.4)	21(7.3)
기타	64(32.8)	23(24.5)	87(30.1)
합계	195(100)	94(100.0)	289(100.0)

아르바이트의 종류가 남성과 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반회사의 경우 남학생은 19.6%이나 여학생의 경우 11.1%로 조사되었다. 편의점이나 식당의 경우 여학생은 28.5%이나 남학생의 경우 18.7%로 조사되어 여학생의 아르바이트는 단순 업무에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아르바이트의 특성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비율이 낮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표 III-63> 아르바이트의 종류(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과외	69(21.1)	75(31.9)	144(25.6)
편의점이나 식당	61(18.7)	67(28.5)	128(22.8)
일반회사	64(19.6)	26(11.1)	90(16.1)
기업지원	9(2.8)	1(0.4)	10(1.8)
대학	24(7.7)	18(7.7)	42(7.5)
기타	100(30.6)	48(20.4)	148(26.3)
합계	327(100.0)	235(100.0)	562(100.0)

아르바이트를 하는 목적은 용돈 마련이 차지하는 비중이 63%로 가장 높고 사회 경험이 그 다음으로 36.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조달은 14%에 불과하였다. 이것은 대학생이 학비는 부모에게 의지하되 용돈은 스스로 조달한다는 인식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다.

<표 III-64> 아르바이트 참여 목적(순서대로 2개 응답)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학비조달	114	14.25
용돈마련	504	63.00
사회경험	292	36.50
집안사정	58	7.25
어학연수	14	1.75
기타	23	2.88

한국의 대학생들은 휴학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하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졸업 전의 불가피하게 군 입대 이외의 이유로 휴학을 했거나 앞으로 휴학을 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49%로 2명 중 한 명으로 나타났다.

<표 III-65> 군 입대 이외의 이유로 휴학경험 또는 휴학계획 유무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있다	375	49.41
없다	354	50.59
합계	759	100.00

대학생의 휴학은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학점이 높을수록 휴학을 했거나 할 계획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군 입대 이외의 이유로 휴학경험이 있거나 할 계획이 있는 대학생의 비율은 51.5%인데 비해서 4.0 이상인 경우 38.2%로 감소한다.

<표 III-66> 군 입대 이외의 이유로 휴학경험 또는 휴학계획 유무(학점별)

(단위: 명, %)

	있다	없다	합계
3.5미만	238(51.5)	224(48.5)	462(100.0)
3.5-4.0	88(45.4)	106(54.6)	194(100.0)
4.0이상	21(38.2)	34(61.8)	55(100.0)
합계	347(48.8)	364(51.2)	711(100.0)

휴학 기간 동안 할 일을 보면 <표 III-67>에서 보듯이, 어학연수를 받게 하는 비율이 3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시험 준비로 22.4%, 자격취득이 17.7%, 단기취업이 1.2%로 나타났다. 이것은 휴학이 취업준비와 깊은 관

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영어 등 어학을 취업에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고, 자격취득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표 III-67> 휴학기간 동안의 계획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단기취업	54	12.22
어학연수	137	31.00
자격취득	78	17.65
시험준비	99	22.40
기타	74	16.74
합계	442	100.00

한국의 대학생들은 졸업을 하더라도 취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응답자의 절대 다수는 대학 졸업 후 취업에 걸리는 기간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표 III-68>에서 보듯이, 졸업 전에 취업을 한다고 예상하는 비율은 21.2%에 지나지 않으며, 3~6개월 걸린다고 보는 응답자의 비중이 24.7%로 가장 많다. 이러한 예상 때문에 대학생이 빨리 졸업하기보다 차라리 휴학을 하고, 대학생활의 상당부분을 학원 등에서 어학실력을 키우거나 자격을 취득하는데 보낸다고 할 수 있다.

<표 III-68> 졸업 후 취업 때까지 걸리는 예상 준비기간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졸업전 취업	158	21.18
0~3개월	173	23.19
3~6개월	184	24.66
6~9개월	62	8.31
9~12개월	78	10.46
12개월 이상	91	12.20
합계	746	100.00

졸업 후 취업 때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은 전공분야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졸업 전 취업의 경우 상경계열이 26.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공과계열로 22.4%이다. 반면 12개월 이상을 예상하는 경우는 교육계열이 33.3%이고 그 다음은 법과계열이 24.6%, 인문계열이 21.8%이다. 이것은 전공에 따라 취업난이 차이가 나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

<표 III-69> 졸업 후 취업 때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계열별)

(단위: 명, %)

		졸업전 취업	0-3개월	3-6개월	6-9개월	9-12개월	12개월 이상	총합
인문	응답자수	15	18	14	8	6	17	78
	퍼센트	19.2	23.1	18	10.3	7.7	21.8	100.0
사회	응답자수	7	12	12	4	7	4	46
	퍼센트	15.2	26.1	26.1	8.7	15.2	8.7	100.0
법과	응답자수	11	13	11	7	7	16	65
	퍼센트	16.9	20	16.9	10	10.8	24.6	100.0
상경	응답자수	51	44	46	17	24	12	194
	퍼센트	26.3	22.7	23.71	8.8	12.4	6.2	100.0
자연	응답자수	21	22	28	9	9	14	103
	퍼센트	20.4	21.4	27.2	8.7	8.7	13.6	100.0
공과	응답자수	43	52	57	14	17	9	192
	퍼센트	22.4	27.1	29.7	7.3	8.9	4.7	100.0
교육	응답자수	3	4	5	2	4	9	27
	퍼센트	11.1	14.1	18.5	7.4	14.8	33.3	100.0
의학	응답자수	0	0	0	0	0	2	2
	퍼센트	0	0	0	0	0	100	100.0
예체능	응답자수	7	8	11	1	4	8	39
	퍼센트	18	20.5	28.2	2.6	10.3	20.5	100.0
총합	응답자수	158	173	184	62	78	91	746
	퍼센트	21.2	23.2	24.7	8.3	10.5	12.2	100.0

졸업 후 취업 때까지 걸리는 기간에 대한 예상은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졸업 전 취업을 예상하는 비율은 남학생은 21%인 반면, 여학생은 21.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12개월 이상의 경우에도 남학생은 13.1%이고 여학생은 11.0%로 나타났다.

<표 III-70> 졸업 후 취업 때까지 걸리는 예상 기간(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 계
졸업전 취업	93(21.0)	64(21.3)	157(21.2)
0~3개월	93(21.0)	80(26.6)	173(23.2)
3~6개월	122(27.5)	62(20.6)	184(24.7)
6~9개월	39(8.8)	23(7.6)	62(8.3)
9~12개월	39(8.8)	39(13.0)	78(10.5)
12개월 이상	58(13.1)	33(11.0)	91(12.2)
합계	444(100.0)	301(100.0)	745(100.0)

제 4 장 취업 준비활동에 대한 평가

대학생이 졸업을 하고 노동시장에 순조롭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취업에 필요한 교육을 제대로 받고, 학업이외의 생활도 취업준비와 연계해서 보내야 하겠지만, 대학을 졸업한 이후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취업을 막연하게 준비하는 것보다 자신의 졸업 후 진로가 서 있을 때 대학교육이나 대학생활에 보다 충실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졸업 후 어떤 직장에서 일하고자 하며, 그 직장에서 일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취업하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극복하는 것이 대학생의 취업능력을 좌우하게 된다.

대학생의 졸업 후 진로에 대한 희망은 <표 IV-1>에서 보듯이 기업 취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지만 38.3%에 지나지 않고, 반면 정부기관 취업이 26.3%로 매우 높으며, 그 다음으로 대학원 진학이 11.2%, 해외 진출이 9.85%로 나타났다. 이것은 최근의 취업난과 고용불안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고용불안이 심각한 기업체 취업보다는 공공부문을 선호하고, 취업난이 심각한 현재보다 나중에 취업하는 것이 낫다는 심리를 반영해 대학원 진학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IV-1> 졸업 후 진로희망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기업취업	300	38.27
정부기관	206	26.28
창업	46	5.87
해외진출	77	9.82
대학원 진학	88	11.22
기타	67	8.55
합계	784	100.00

졸업 후 진로 희망은 전공에 따라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문계열의 경우 해외진출이 18.5%로 상대적으로 높고, 법과계열과 사회계열의 경우 정부기관이 각각 56.1%와 53.9%로 높다. 공과계열과 상경계열의 경우 기업취업이 각각 57.3%와 45.5%를 차지하고 있다. 자연계열의 경우 대학원 진학이 32.1%로 나타나고 있다. 인문계열 학생의 해외진출에 대한 선호도는 인문계열이 영어나 중국어 등 외국어 습득과 관련이 많은 점을 반영하고 있고, 공과계열이나 상경계열은 기업 활동과 관련이 깊다는 점을 반영한다.

<표 IV-2> 졸업 후 진로희망(계열별)

(단위: 명, %)

		기업취업	정부기관	창업	해외진출	대학원 진학	기타	총합
인문	응답자수	30	18	4	15	10	4	81
	퍼센트	37	22.2	4.9	18.5	12.4	4.9	100.0
사회	응답자수	9	28	4	3	5	3	52
	퍼센트	17.3	53.9	7.7	5.7	9.6	5.8	100.0
법과	응답자수	11	37	3	1	7	7	66
	퍼센트	16.7	56.1	4.6	1.5	10.6	10.6	100.0
상경	응답자수	91	52	12	27	3	15	200
	퍼센트	45.5	26	6	13.5	1.5	7.5	100.0
자연	응답자수	32	16	8	12	36	8	112
	퍼센트	28.6	14.3	7.1	10.7	32.1	7.1	100.0
공과	응답자수	114	41	11	11	14	8	199
	퍼센트	57.3	20.6	5.5	5.5	7	4	100.0
교육	응답자수	2	9	0	1	1	16	29
	퍼센트	6.9	31	0.0	3.5	3.5	55.2	100.0
의학	응답자수	0	0	0	1	2	1	4
	퍼센트	0	0	0.0	25	50	25	100.0
예체능	응답자수	11	5	4	6	10	5	41
	퍼센트	26.8	12.2	9.8	14.6	24.4	12.2	100.0
총합	응답자수	300	206	46	77	88	67	784
	퍼센트	38.3	26.28	5.9	9.8	11.2	8.6	100.0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의 경우 기업취업(41.1%)과 창업(7.6%)의 비중이 여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 여학생의 경우 대학원진학(15.3%)과 해외진출(11.1%)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렵고 인문계열에 재학하는 비율이 높은 점을 반영하다.

<표 IV-3> 졸업 후 진로(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기업취업	185(41.1)	115(34.5)	300(38.3)
정부기관	120(26.7)	86(25.8)	206(26.3)
창업	34(7.6)	11(3.3)	45(5.9)
해외진출	40(8.9)	37(11.1)	77(9.8)
대학원 진학	37(8.2)	51(15.3)	88(11.2)
기타	34(7.6)	33(9.9)	67(8.6)
합계	450(100.0)	333(100.0)	783(100.0)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가 진로결정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취업의 경우, 군 복무를 마친 제대자는 46.9% 반면, 군 입대 예정자는 27.3%를 차지하였다. 또한 대학원 진학은 제대자는 7.7%, 군 입대 예정자는 11.5%를 차지하였다.

<표 IV-4> 졸업 후 진로(병역의무수행 여부별)

(단위: 명, %)

	제대	예정	합계
기업취업	122(46.9)	38(27.3)	160(40.1)
정부기관	61(23.5)	44(31.7)	105(26.3)
창업	16(6.2)	11(7.9)	27(6.8)
해외진출	23(8.9)	16(11.5)	39(9.8)
대학원 진학	20(7.7)	16(11.5)	36(9.0)
기타	18(6.9)	14(10.1)	32(8.0)
합계	260(100.0)	139(100.0)	399(100.0)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학년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다. 특히 기업에 취업하는 것은 고학년이 될수록 높아지며 정부기관 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희망은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공부문에 대한 취업경쟁률이 높고 창업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을 학년이 올라갈수록 인식하게 된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IV-5> 졸업 후 희망진로(학년별)

(단위: 명, %)

	기업취업	정부기관	창업	해외진출	대학원진학	기타	총합
1학년	25(25.8)	30(30.9)	9(9.3)	8(8.3)	14(14.4)	11(11.3)	97(100.0)
2학년	58(33.5)	51(29.5)	12(6.9)	23(13.3)	16(9.3)	13(7.5)	173(100.0)
3학년	104(39.1)	76(28.6)	16(6.0)	23(8.7)	29(10.9)	18(6.8)	266(100.0)
4학년	112(45.9)	49(20.1)	9(3.7)	21(8.6)	29(11.9)	24(9.9)	244(100.0)
총 합	299(38.3)	206(26.4)	46(5.9)	75(9.6)	88(11.3)	66(8.5)	780(100.0)

대학생들은 학점에 따라 졸업 후 희망 진로가 달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기업취업이나 창업에 대한 희망이 많은 반면, 학점이 높은 경우 해외진출이나 대학원 진학의 비율이 올라간다.

<표 IV-6> 졸업 후 희망진로(학점별)

(단위: 명, %)

	3.5미만	3.5-4.0	4.0이상	합계
기업취업	197(41.5)	72(35.3)	19(31.2)	288(38.9)
정부기관	122(25.7)	58(28.4)	9(14.8)	189(25.5)
창업	30(6.3)	11(5.4)	3(4.9)	44(6.0)
해외진출	47(9.9)	17(8.3)	11(18.0)	75(10.1)
대학원 진학	40(8.4)	31(15.2)	11(18.0)	82(11.1)
기타	39(8.2)	15(7.4)	8(13.1)	62(8.4)
합계	475(100.0)	204(100.0)	61(100.0)	740(100.0)

희망하는 직장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비율은 <표 IV-7>에서 보듯이 희망하는 직장을 선정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8%로 나타났다. 그렇지 않는 경우는 39%에 그쳤다.

<표 IV-7> 희망하는 구체적 직장선정 유무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그렇다	479	60.79
그렇지 않다	309	39.21
합계	788	100.00

학점이 높을수록 희망하는 직장을 구체적으로 선정하고 있다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55.6%인데 비해서 4.0 이상인 경우 70.5%로 증가하였다. 이것은 학점이 높을수록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이 뚜렷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8> 희망하는 구체적 직장선정 유무(학점별)

(단위: 명, %)

	3.5미만	3.5-4.0	4.0이상
있다	264(55.6)	143(69.1)	43(70.5)
없다	211(44.4)	64(30.9)	18(29.5)
합계	475(100.0)	207(100.0)	61(100.0)

대학생이 희망하는 직장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표 IV-9>에서 보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장래성이고 그 다음으로 급여수준, 직장의 안정성으로 나타났다.

<표 IV-9> 희망 직장 선정의 중요 기준(순서대로 2개 선정)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인지도	91	11.38
이미지	79	9.88
장래성	463	57.88
급여수준	431	53.88
안정성	344	43.00
기타	63	7.88

희망하는 직업을 선정하는 기준은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이미지와 직장의 안정성을 다소 중시하고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서 장래성과 급여수준을 다소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희망 직장 선정의 중요 기준(성별)*

(단위: 명, %)

	남	여
인지도	47(10.2)	44(13.0)
이미지	47(10.2)	32(9.5)
장래성	273(59.2)	189(55.9)
급여수준	255(55.3)	175(51.8)
안정성	194(42.1)	150(44.4)
기타	31(6.7)	32(9.5)

* 순서대로 2개 선정

희망 직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응답자의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0만원 이상인 고소득 계층의 경우 직장의 인지도(14.0%)와 이미지(15.8%)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표 IV-11> 희망 직장 선정의 중요 기준(가계소득별)*

(단위: 명, %)

		150만원 미만	150-300 만원	300-450 만원	450-600 만원	600만원 이상
미응답	응답자수	3	6	6	2	0
	퍼센트	2.3	1.9	3.4	2.4	0.0
인지도	응답자수	9	41	20	8	8
	퍼센트	6.8	12.7	11.2	9.4	14
이미지	응답자수	13	23	25	6	9
	퍼센트	9.9	7.1	14	7.1	15.8
장래성	응답자수	75	192	93	53	37
	퍼센트	56.8	59.3	52	62.4	64.9
급여수준	응답자수	66	175	97	51	32
	퍼센트	50	54	54.2	60	56.1
안정성	응답자수	67	148	74	33	14
	퍼센트	50.8	45.7	41.3	38.8	24.6
기타	응답자수	10	24	16	4	8
	퍼센트	7.6	7.4	8.9	4.7	14.0
합계	총 응답자	132	324	179	85	57

* 순서대로 2개 선정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는 <표 IV-12>에서 보듯이 외국어를 꼽는 비율이 66.9%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자격증(49.6%), 성적(48.9%), 경험(47%)의 순서로 나타났다. 반면 출신대학이나 인맥이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외국어 습득이나 자격취득을 위해서 학원을 다니거나 휴학을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또한 다수의 대학생은 출신대학이나 인맥보다는 실력이 취업을 좌우한다고 보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IV-12> 희망 직장에 취업시 예상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순서대로 3개 선택)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성적	391	48.88
자격증	397	49.63
경험	376	47.00
외국어	535	66.88
인맥	210	26.25
출신대학	214	26.75
자기소개	109	13.63
기타	55	6.88

희망하는 직장에 취업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서 성적이나 외국어 등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반면,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서 인맥이나 출신대학을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3> 희망 직장 구직시 예상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성적	214(46.6)	177(52.4)	391(48.9)
자격증	227(49.2)	170(50.3)	397(49.6)
경험	219(47.5)	156(46.2)	376(47.0)
외국어	303(65.7)	232(68.6)	535(66.9)
인맥	131(28.4)	78(23.1)	210(26.3)
출신대학	128(27.8)	85(25.1)	214(26.8)
자기소개	58(12.6)	51(15.1)	109(13.6)
기타	26(5.6)	29(8.6)	55(6.9)

* 순서대로 2개 선정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시험에 몰두하고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취업을 위해서 특정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46.1%로 두 명 중에 한 명이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하고 있다	364	46.13
하고 있지 않다	425	53.87
합계	789	100.00

취업을 위하여 특정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는 남학생(45.4%)과 여학생(47.3%)간에 별 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15>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하고 있다	205(45.4)	159(47.3)	364(46.1)
하고 있지 않다	247(54.7)	177(52.7)	425(53.8)
합계	452(100.0)	336(100.0)	789(100.0)

남학생의 경우 취업을 위하여 특정한 시험을 준비하는 응답비율이 제대자는 50.8%이고 반면 입대 예정자들은 30.7%이다. 이것은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가 취업준비의 기점이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IV-16>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병역의무수행 여부별)

(단위: 명, %)

	제대	예정	합계
하고 있다	132(50.8)	42(30.7)	174(43.8)
하고 있지 않다	128(49.2)	95(69.3)	223(56.2)
합계	260(100.0)	137(100.0)	397(100.0)

취업을 위한 특정 시험의 준비여부는 응답자의 가계소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6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계층의 경우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29.8%로 나타났지만 150만원 미만의 경우 45.7%로 나타났다.

<표 IV-17>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가계소득별)

(단위: 명, %)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총합
150만원미만	59	70	129
	45.7	54.3	100.0
150~300만원	149	174	323
	46.1	53.9	100.0
300~450만원	83	92	175
	47.4	52.6	100.0
450~600만원	45	38	83
	54.2	45.8	100.0
600만원 이상	171	40	57
	29.8	70.2	100.0
총합	353	414	767
	46	54	100.0

학점이 높을수록 취업을 위해 특정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학점이 3.5미만인 경우 40.7%이지만 4.0이상인 경우 64.5%로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학점이 좋은 학생일수록 취업준비에 더 열성적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표 IV-18>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학점별)

(단위: 명, %)

	3.5미만	3.5-4.0	4.0이상
있다	198(40.7)	111(53.6)	40(64.5)
없다	276(58.2)	96(46.4)	22(35.5)
합계	474(100.0)	207(100.0)	62(100.0)

응답자들이 준비하는 시험은 <표 IV-19>에서 보듯이 어학시험이 21.5%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자격증 취업시험과 국가고시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IV-19> 준비하는 시험 종류(복수선택 가능)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어학시험	174	21.5
자격증취득시험	163	20.38
기능시험	33	4.13
국가고시	105	13.13
기타	18	2.25

취업을 위해 준비하는 시험의 종류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학생은 자격증이 20.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반면, 여학생은 어학시험이 26.3%로 비중이 가장 크다.

<표 IV-20> 준비하는 시험 종류(성별)**

(단위: 명, %)

	남	여
어학시험	85(18.4)	89(26.3)
자격증취득시험	93(20.2)	70(20.7)
기능시험	22(4.8)	11(3.3)
국가고시	65(14.1)	40(11.8)
기타	11(2.4)	7(2.1)

* 복수선택 가능

취업을 위해서 특정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은 교육계열이 62.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인문계열(56.8%), 상경계열(55.5%)이다. 예체능계열은 33.3%, 자연계열 36.9%, 공과계열은 39.1%로 나타났다.

<표 IV-21> 취업을 위한 특정시험 준비여부

(단위: 명, %)

구분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	총합
인문	응답자수	46	35	81
	퍼센트	56.8	43.2	100.0
사회	응답자수	21	31	52
	퍼센트	40.4	59.6	100.0
법과	응답자수	33	35	68
	퍼센트	48.5	51.5	100.0
상경	응답자수	111	89	200
	퍼센트	55.5	44.5	100.0
자연	응답자수	41	70	111
	퍼센트	36.9	63.1	100.0
공과	응답자수	79	123	202
	퍼센트	39.1	60.9	100.0
교육	응답자수	18	11	29
	퍼센트	62.1	37.9	100.0
의학	응답자수	1	3	4
	퍼센트	25	75	100.0
예체능	응답자수	14	28	42
	퍼센트	33.3	66.7	100.0
총합	응답자수	364	425	789
	퍼센트	46.1	53.9	100.0

취업을 위해서 시험을 준비하는 경우 그 성향은 전공에 따라 다르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어학시험에 집중되고 있고, 교육계열은 국가고시에 집중되고 있으며 법과계열의 경우 자격취득의 비중이 크게 나타났다.

<표 IV-22> 준비하는 시험 종류(전공분야별)*

(단위: 명, %)

취업시험종류		전공분야별								
		인문	사회	법과	상경	자연	의학	교육	의학	예체능
미응답	응답자수	33	30	32	86	60	111	1	1	24
	퍼센트	39.8	57.6	45.7	42.4	53.6	54.7	35.5	25	57.1
어학 시험	응답자수	31	7	12	51	29	34	1	1	8
	퍼센트	37.4	13.5	17.1	25.1	25.9	16.8	3.2	25	19.1
자격 취득	응답자수	17	10	15	45	13	54	2	1	6
	퍼센트	20.5	19.2	21.4	22.2	11.61	26.6	6.5	25	3
기능 시험	응답자수	4	3	3	5	5	12	2	0	1
	퍼센트	4.8	5.8	1.4	2.5	4.5	5.9	6.5	0	4
국가 고시	응답자수	5	6	16	29	12	15	17	1	4
	퍼센트	6	11.5	22.9	14.3	10.7	7.4	54.8	25	9.5
기타	응답자수	1	1	1	5	3	2	0	0	5
	퍼센트	1.2	1.9	1.4	2.5	2.7	1	0	0	11.9
합계	총응답자수	83	52	70	203	112	203	31	4	42

* 복수선택 가능

대학생들은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는 데 대해서 약간 아니다와 전혀 아니다 라는 비율을 합치면 41.5%인데 약간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비율을 합치면 24.2%이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정보부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IV-23>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도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매우 그렇다	31	3.95
약간 그렇다	159	20.25
보통이다	268	35.14
약간 아니다	216	27.52
전혀 아니다	111	14.14
합계	785	100.00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정도가 전공계열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난다.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을 합한 비율은 인문계열의 경우 17.5%인데 비해서 상경계열의 경우 29.9%이다. 이공계라도 자연계열의 경우 19.2%인데 공과계열의 경우 21.0%이다.

<표 IV-24>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도(계열별)

(단위: 명,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인문	응답자수	2	12	32	23	11	80
	퍼센트	2.5	15	40	28.8	13.8	100.0
사회	응답자수	5	5	13	24	5	52
	퍼센트	9.6	9.6	25	46.2	9.6	100.0
법과	응답자수	1	15	24	17	11	68
	퍼센트	1.5	22.1	35.29	25	16.2	100.0
상경	응답자수	10	50	65	52	24	201
	퍼센트	5	24.9	32.3	25.9	11.94	100.0
자연	응답자수	2	19	40	27	21	109
	퍼센트	1.8	17.4	36.7	24.8	19.3	100.0
공과	응답자수	7	37	67	59	31	201
	퍼센트	3.5	18.4	33.3	29.4	15.4	100.0
교육	응답자수	2	8	11	7	1	29
	퍼센트	6.9	27.6	37.9	24.1	3.5	100.0
의학	응답자수	1	0	1	2	0	4
	퍼센트	0.1	0.0	0.1	0.3	0.0	100.0
예체능	응답자수	1	13	15	5	7	41
	퍼센트	2.4	31.71	36.6	12.2	17.1	100.0
총합	응답자수	31	159	268	216	111	785
	퍼센트	4	20.3	34.1	27.5	14.1	100.0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의 부족함을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다.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다는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27.3%이나 여학생의 경우 20.1%에 불과하다. 이것은 여학생이 취업정보부족을 보다 심각하게 느끼는 것을 보여준다.

<표 IV-25>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도(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매우 그렇다	20(4.4)	111(3.3)	31(4.0)
약간 그렇다	103(22.9)	56(16.8)	159(20.3)
보통이다	147(32.7)	120(35.9)	268(35.1)
약간 아니다	117(26)	99(29.6)	216(27.5)
전혀 아니다	63(14)	48(14.4)	111(14.1)
합계	450(100.0)	334(100.0)	785(100.0)

학년이 올라갈수록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가 많아지며 특히 4학년이 되면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표 IV-26>에서 보듯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데 대해서 매우 그렇다는 비율을 보면 1학년의 경우 0.9%, 3학년의 경우 3.0%, 4학년의 경우 7.8%로 나타났다.

<표 IV-26> 취업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정도(학년별)

(단위: 명, %)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이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합
1학년	1(0.9)	11(10.9)	30(29.7)	31(30.7)	28(27.7)	101(100.0)
2학년	3(1.8)	21(12.3)	56(32.8)	58(33.9)	33(19.3)	171(100.0)
3학년	8(3.0)	58(21.9)	95(35.8)	76(28.7)	28(10.6)	265(100.0)
4학년	19(7.8)	68(27.9)	85(34.8)	50(20.5)	22(9.0)	244(100.0)
총합	31(4.0)	158(20.2)	266(34.1)	215(27.5)	111(14.2)	781(100.0)

취업준비에 가장 필요한 정보로는 <표 IV-27>에서 보듯이 기업이 요구하는 자질에 대한 정보라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것은 대학생이 접하는 정보가 채용광고 등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반면 취업에 필요한 자질 등 '고급' 정보는 부족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에 대한 취업정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양보다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표 IV-27> 취업준비에 가장 필요한 정보(복수응답)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채용정보	251	31.38
기업에 대한 정보	150	18.75
기업이 요구하는 자질에 대한 정보	512	64.00
면접 등에 대한 정보	112	14.00
기타	36	4.50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의 입수경로는 <표 IV-28>에서 보듯이 인터넷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선배·친구로 나타났다.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경로로는 대학, 신문, 가족·친지 등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이 정보입수에 중요한 경로가 되고 있지만 여전히 선배나 친구 등이 중요한 정보 입수 경로가 되고 있다는 점은 인터넷을 통한 취업정보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표 IV-28> 취업준비 정보의 입수 경로(순서대로 3가지 응답)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선배·친구	586	73.25
가족·친지	217	27.13
인터넷	670	83.75
신문	233	29.13
잡지	62	7.55
광고	119	14.88
대학	241	30.13
학원	68	8.5
기타	43	5.38

설문조사에 대한 응답자들은 대학생의 취업난이 심각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경제성장의 부진을 꼽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구조의 변화,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들고 있다. 대학생 스스로 자신들의 취업에 대한 가치관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29> 대학생의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
(순서대로 3개 선택)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경제성장의 부진	622	77.75
산업구조의 변화	505	63.13
대기업 근로자의 기득권	352	44.00
대학교육의 부실	350	43.75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가치관	459	57.38
기타	41	5.13

학년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난이 심각해진 이유가 다르다. 1학년의 경우 대기업 근로자의 기득권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고 반면 대학교육의 부실을 지적하는 비율은 낮다. 그러나 4학년의 경우 정반대로 대학교육의 부실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IV-30> 대학생의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
(학년별)

(단위: 명, %)

취업난 심각 중요이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미응답	0(0.0)	1(0.6)	4(1.5)	3(1.2)
경제성장의 부진	84(83.2)	130(74.3)	215(79.0)	189(76.2)
산업구조의 변화	61(60.4)	111(63.4)	171(62.9)	160(64.5)
대기업 근로자의 기득권	59(58.4)	82(46.9)	116(42.7)	93(38.0)
대학교육의 부실	32(31.7)	79(45.1)	109(40.1)	128(51.6)
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가치관	60(59.4)	111(63.4)	153(56.3)	133(53.63)
기타	0(0.0)	6(3.4)	19(7)	16(6.5)
합계	101(100.0)	175(100.0)	272(100.0)	248(100.0)

전공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난이 심각해진 이유가 다르다. 인문계열이나 자연계열의 경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취업에 대한 가치관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1> 대학생이 생각하는 대학생의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전공분야별)*

(단위: 명, %)

취업난 심각 중요이유		전공분야별								
		인문	사회	법과	상경	자연	공과	교육	의학	예체능
미응답	응답자수	3	0	1	3	0	0	1	0	0
	퍼센트	3.6	0	1.4	1.5	0	0	3.2	0.0	0.0
경제성장	응답자수	66	41	53	161	85	158	25	2	31
	퍼센트	79.5	78.9	75.7	79.3	75.9	77.8	80.7	50.0	73.8
산업구조	응답자수	53	37	40	136	63	135	20	1	20
	퍼센트	63.9	71.2	57.1	67.0	56.3	66.5	64.5	25.0	47.6
대기업 기득권	응답자수	24	22	29	81	52	102	16	3	23
	퍼센트	28.9	42.3	41.4	39.9	46.4	50.3	51.6	75.0	54.8
대학교육	응답자수	39	17	37	101	52	78	9	1	16
	퍼센트	47	32.7	52.9	49.8	46.4	38.4	29.0	25.0	38.1
대학생들의 취업가치관	응답자수	51	33	36	106	70	117	17	1	28
	퍼센트	61.5	63.6	51.4	52.2	62.5	57.6	54.8	25.0	66.7
기타	응답자수	5	2	10	8	7	7	0	0	2
	퍼센트	6	3.9	14.3	3.9	6.3	3.5	0	0	4.8
합계	총응답자	83	52	70	203	112	203	31	4	42

* 순서대로 3개 선택

대학생이 취업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문제가 전공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인문계열의 경우 채용정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반면, 사회계열의 경우 선발기준 정보가 크다. 법과의 경우 출신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교

육계열의 경우 전공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상경계열이나 공과계열의 경우 외국어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표 IV-32> 개인적으로 취업에 가장 어려운 점(전공분야별)*

(단위: 명, %)

취업애로사항		전공분야별								
		인문	사회	법과	상경	자연	공과	교육	의학	예체능
미응답	응답자수	4	1	0	3	4	3	1	0	0
	퍼센트	4.8	1.9	0	1.5	3.6	1.5	3.2	0	0
채용정보	응답자수	55	24	44	116	60	116	15	2	20
	퍼센트	66.3	46.2	62.9	57.1	53.6	57.1	48.4	50	47.6
선발기준 정보부족	응답자수	44	37	34	119	64	121	17	2	21
	퍼센트	53	71.2	48.6	58.6	57.1	59.6	54.8	50	50
학비마련	응답자수	10	9	14	11	14	20	5	1	8
	퍼센트	12.1	17.3	20	5.4	12.5	9.9	16.1	25	19.1
출신대학	응답자수	30	13	31	81	30	72	5	0	10
	퍼센트	36.1	25	44.3	39.9	26.8	35.5	16.1	0	23.8
전공문제	응답자수	26	24	19	36	49	68	16	1	14
	퍼센트	31.3	46.2	27.1	17.7	43.8	33.5	51.6	25	33.3
인맥문제	응답자수	19	8	20	55	26	46	7	1	10
	퍼센트	22.9	15.8	28.6	27.1	23.2	22.7	22.6	25	23.8
외국어문제	응답자수	39	31	30	135	61	130	10	0	25
	퍼센트	47	59.6	42.9	66.5	54.5	64	32.3	0	59.5
나이나 신체 조건의 문제	응답자수	6	3	8	17	6	6	2	0	6
	퍼센트	7.2	5.8	11.4	8.4	5.4	3	6.5	0	14.3
기타	응답자수	7	2	4	17	7	6	4	0	4
	퍼센트	8.4	3.9	5.7	8.4	6.3	3	12.9	0	9.5
합계	총응답자	83	52	70	203	112	203	31	4	42

* 순서대로 3개 선택

대학생이 취업하기 어려운 개인적 문제는 학년에 따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 4학년의 경우 외국어 문제와 채용정보부족과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다.

<표 IV-33> 개인적으로 취업에 가장 어려운 점(학년별)*

(단위: 명, %)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미응답	2(2.0)	3(1.7)	6(2.2)	5(2.0)
채용정보 부족	60(59.4)	115(65.7)	138(50.7)	136(54.8)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	58(57.4)	100(57.1)	166(61.0)	132(53.2)
학비마련	15(14.9)	16(9.1)	35(12.9)	26(10.5)
출신대학문제	36(35.6)	63(36)	86(31.6)	87(35.1)
전공문제	35(34.7)	50(28.6)	85(31.3)	82(33.1)
인맥문제	32(31.7)	36(20.6)	73(26.8)	50(20.2)
외국어문제	53(52.5)	106(60.6)	152(55.9)	148(59.7)
나이나 신체조건문제	12(4.0)	12(6.9)	15(5.5)	22(8.9)
기 타	2(2.0)	7(4.0)	25(9.2)	17(6.9)
합계	101(100.0)	175(100.0)	272(100.0)	248(100.0)

* 순서대로 3개 선택

자신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외국어문제,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 부족, 채용정보 부족을 들고 있다. 반면 나이나 신체조건문제를 지적하는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34> 개인적으로 취업에 가장 어려운 점(순서대로 3개)

(단위: 명, %)

	응답자수	백분율
채용정보 부족	452	56.50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부족	459	57.38
학비마련	92	11.50
출신대학문제	272	34.00
전공문제	253	31.63
인맥문제	192	24.00
외국어 문제	461	57.63
나이나 신체조건 문제	54	6.75
기타	51	6.38

취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어려운 점으로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큰 차이는 없으나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채용정보부족을 지적하는 비율(61.2%)이 높고 남학생은 출신대학(37.1%)과 학비문제(13.5%)를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5> 개인적으로 취업에 가장 어려운 점(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채용정보 부족	245(53.1)	207(61.2)	452(56.5)
선발기준에 대한 정보부족	268(58.1)	191(56.5)	459(57.4)
학비마련	62(13.5)	30(8.9)	92(11.5)
출신대학문제	171(37.1)	100(29.6)	272(33.0)
전공문제	142(30.8)	111(32.8)	253(31.6)
인맥문제	112(24.3)	79(23.4)	192(24.0)
외국어 문제	260(56.4)	200(59.2)	461(57.6)
나이나 신체조건 문제	31(6.7)	23(6.8)	54(6.8)
기타	26(5.6)	25(7.4)	51(6.4)

* 순서대로 3개 선택

제 5 장 교육관 및 취업관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본인 자신의 가치관에서도 찾을 수 있다. 교육에 대한 가치관과 취업에 대한 가치관이 취업준비는 물론 직장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다고 하더라도 대학에서 배운 지식이 노동시장의 현실과 동떨어지면 대학 교육이 학생의 취업에 기여하기 어렵고, 대학이 아무리 좋은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학생들이 전공을 잘못 선택하게 되면 취업이 어렵다.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의 객관적인 상황에 비추어 취업에 대한 기대수준이 지나치게 높으면 대학을 졸업하더라도 취업하기 어렵다.

대학생들의 교육관 및 취업관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자신 선택한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그렇다는 응답과 약간 그렇다는 응답을 합치면 68.1%를 상회하였다. 이것은 대학생이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전공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 등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취업의 현실적인 조건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표 V-1>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취업에 도움 정도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190	27.74
약간 그렇다	310	40.36
그저 그렇다	167	21.74
약간 아니다	62	8.07
전혀 아니다	39	5.08
합계	768	100.00

그러나 대학생의 의식을 학년별로 보면 결과는 다소 달라진다.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율은 학년이 올라가면서 늘어나고 있다. 약간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1학년의 경우 13%, 2학년의 경우 20.5%, 3학년의 경우 20.9%, 4학년의 경우 25.2%를 차지하였다.

<표 V-2>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취업에 도움 정도(학년별)

(단위: 명, %)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합
1학년	26(26.0)	36(36.0)	25(25.0)	8(8.0)	5(5.0)	100(100.0)
2학년	39(11.1)	68(29.8)	44(39)	13(12.9)	7(7.6)	171(100.0)
3학년	71(13.7)	105(34.6)	53(31)	24(15.6)	10(5.3)	263(100.0)
4학년	53(12.2)	98(33.0)	45(30)	17(13.5)	17(11.7)	230(100.0)
총합	189(24.7)	307(40.2)	167(22)	62(8.1)	39(5.1)	764(100.0)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취업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해서 전공분야별로 응답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교육계열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법과계열 순이며, 약간 아니다 또는 전혀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자연계열의 경우 25.0%이고, 사회계열의 경우 19.6%, 인문계열의 경우 18.8%로 나타났다.

<표 V-3> 자신이 선택한 전공이 취업에 도움 정도(계열별)

(단위: 명,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인문	응답자수	14	29	22	12	3	80
	퍼센트	17.5	36.3	27.5	15	3.8	100.0
사회	응답자수	9	19	13	8	2	51
	퍼센트	17.7	37.3	25.5	15.7	3.9	100.0
법과	응답자수	20	26	17	3	2	68
	퍼센트	29.4	38.2	25	4.4	2.9	100.0
상경	응답자수	45	107	35	4	7	198
	퍼센트	22.7	54	17.7	2	3.5	100.0
자연	응답자수	22	26	33	16	11	108
	퍼센트	20.4	24.1	30.6	14.8	10.2	100.0
공과	응답자수	51	77	37	15	10	190
	퍼센트	26.8	40.5	19.5	7.9	5.3	100.0
교육	응답자수	16	9	3	1	0	29
	퍼센트	55.2	31	10.3	3.5	0	100.0
의학	응답자수	3	0	0	0	0	3
	퍼센트	100	0	0	0	0	100.0
예체능	응답자수	10	17	7	3	4	41
	퍼센트	24.4	41.5	17.1	7.3	9.8	100.0
총합	응답자수	190	310	167	62	39	768
	퍼센트	24.7	40.4	21.7	8.1	5.1	100.0

대학생들은 전공에 따라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이 작은 편이다. 응답자의 12.5%와 32.1%는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하여 정말 그렇다 또는 약간 그렇다고 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것은 자신이 이수하는 교과목에 대한 자부심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대학생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자질 등에 대한 정보부족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표 V-4>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취업에 도움 정도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96	12.53
약간 그렇다	246	32.11
그저 그렇다	251	32.77
약간 아니다	111	14.49
전혀 아니다	62	8.09
합계	766	100.00

그러나 이러한 평가도 학년에 따라 다소 달라진다.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학년이 되면서 급격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5>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취업에 도움 정도(학년별)

(단위: 명, %)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합
1학년	12(12.2)	27(27.6)	34(34.7)	17(17.4)	8(8.2)	96(100.0)
2학년	19(11.1)	51(29.8)	66(38.6)	22(12.9)	13(7.6)	171(100.0)
3학년	36(13.4)	91(34.6)	81(30.8)	41(15.6)	14(5.3)	263(100.0)
4학년	28(12.2)	76(33)	68(29.6)	31(13.5)	27(13.5)	230(100.0)
총합	95(12.5)	245(32.2)	249(32.7)	111(14.6)	62(8.1)	762(100.0)

교과목의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는 전공분야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인문, 사회, 자연계열이 많고 반면, 법과, 상경, 공과계열이 낮다. 교육계열의 경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비율이 75.8%로 나타났다.

<표 V-6>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취업에 도움 정도(계열별)

(단위: 명,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인문	응답자수	6	17	27	19	11	80
	퍼센트	7.5	21.3	33.8	23.8	13.8	100.0
사회	응답자수	5	18	14	13	1	51
	퍼센트	9.8	35.3	27.45	25.5	2	100.0
법과	응답자수	11	17	25	10	4	67
	퍼센트	16.4	25.4	37.3	14.9	6	100.0
상경	응답자수	19	82	65	25	8	199
	퍼센트	9.6	41.2	32.7	12.6	4	100.0
자연	응답자수	11	25	36	17	18	107
	퍼센트	10.3	23.4	33.6	15.9	16.8	100.0
공과	응답자수	28	59	68	21	13	189
	퍼센트	14.8	31.2	36	11.1	6.9	100.0
교육	응답자수	9	13	4	2	1	29
	퍼센트	31	44.8	13.8	6.9	3.5	100.0
의학	응답자수	3	0	0	0	0	3
	퍼센트	100	0	0.00	0	0	100.0
예체 능	응답자수	4	15	12	4	6	41
	퍼센트	9.8	36.6	29.3	9.8	14.6	100.0
총합	응답자수	96	246	251	111	62	766
	퍼센트	12.5	32.1	32.8	14.5	8.1	100.0

전공이나 교과목의 내용과 달리 교수님의 수업진행방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이 전공보다는 교과목이, 교과목보다는 교수학습방식에서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V-7> 교수님 수업진행방식이 취업에 도움 정도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65	8.51
약간 그렇다	178	23.30
그저 그렇다	291	38.09
약간 아니다	147	19.24
전혀 아니다	83	10.86
합계	764	100.00

대학이 취업준비를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긍정적인 응답보다 훨씬 많다. <표 V-8>에서 보듯이,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는 비율이 각각 3.4%와 20.8%를 차지하고 있고 반면, 전혀 아니다와 약간 아니다 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19.4%와 27.8%를 차지하고 있다. 이것은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소극적이고, 취업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표 V-8> 대학의 취업준비지원 정도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26	3.4
약간 그렇다	159	20.81
그저 그렇다	219	28.66
약간 아니다	212	27.75
전혀 아니다	148	19.37
합계	764	100.00

학생들은 대학이 취업준비를 지원하는데 대해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더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대학이 취업준비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1학년은 12.0%인데 비해서, 4학년은 25.2%로 그 비율이 두 배 이상 높다.

<표 V-9> 대학의 취업준비지원 정도(학년별)

(단위: 명, %)

	정말 그렇다	약간 그렇다	그저 그렇다	약간 아니다	전혀 아니다	총합
1학년	4(4.0)	24(24.0)	34(34.0)	26(26.0)	12(12.0)	100(100.0)
2학년	7(4.1)	33(19.4)	47(27.7)	50(29.4)	33(19.4)	170(100.0)
3학년	8(3.1)	53(20.4)	81(31.2)	73(28.1)	45(17.3)	260(100.0)
4학년	7(3.0)	47(20.4)	56(24.4)	62(27.0)	58(25.2)	230(100.0)
총합	26(3.4)	157(20.7)	218(28.7)	211(27.8)	148(19.5)	760(100.0)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받으면서 전공지식을 습득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대학교육을 통해서 전공 지식을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은 정말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을 합치면 74.7%나 된다. 이것은 한국의 대학이 비교적 전공지식은 잘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0> 대학교육을 통한 전공지식 습득의 도움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160	20.81
약간 그렇다	338	43.95
그저 그렇다	190	24.71
약간 아니다	59	7.67
전혀 아니다	22	2.86
합계	769	100.00

반면 대학교육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보다 높지만 그러나 전공지식 습득의 경우처럼 높지는 않았다. 이것은 한국의 대학이 교양고정 등 대인 관계능력을 키우는 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1> 대학교육을 통한 대인관계능력 향상의 도움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107	13.93
약간 그렇다	208	27.08
그저 그렇다	252	32.81
약간 아니다	123	16.02
전혀 아니다	78	10.16
합계	768	100.00

대학교육이 대인관계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는 응답은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정말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을 합치면 남학생의 경우 40.6%이고 여학생은 41.4%로 조사되었다.

<표 V-12> 대학교육을 통한 대인관계능력 향상도움 정도(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정말 그렇다	64(14.6)	42(12.8)	106(13.9)
약간 그렇다	114(26.0)	94(28.6)	208(27.1)
그저 그렇다	144(32.9)	108(32.8)	252(32.8)
약간 아니다	69(15.8)	54(16.4)	123(16.0)
전혀 아니다	47(10.7)	31(9.4)	78(10.2)
합계	438(100.0)	329(100.0)	767(100.0)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관이 비교적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을 느끼면 취업하겠다는 생각에 그렇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47.1%이고 아니라는 부정적인 응답은 28.6%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업이 채용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급여문제 뿐 아니라 일에 대한 사명감과 보람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3>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 느끼면 취업할 지 여부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121	15.80
약간 그렇다	240	31.33
그저 그렇다	186	24.28
약간 아니다	156	20.37
전혀 아니다	63	8.22
합계	766	100.00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을 느끼면 취업하겠다는 의사는 남녀 간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 정말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을 합치면 그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28.7%이고 여학생은 28.8%로 나타났다.

<표 V-14>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 느끼면 취업할 지 여부(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정말 그렇다	41(9.5)	16(4.9)	57(7.5)
약간 그렇다	83(19.2)	78(23.9)	161(21.2)
그저 그렇다	131(30.3)	114(34.9)	246(32.3)
약간 아니다	121(27.9)	92(28.1)	213(28.0)
전혀 아니다	57(13.2)	27(8.3)	84(11.0)
합계	433(100.0)	327(100.0)	761(100.0)

남학생의 경우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을 느끼면 취업하겠다는 의사는 군 복무를 마친 제대자들이 예정자 보다 약간 크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 정말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제대자의 경우 50.6%, 입대 예정자의 경우 47.8%로 조사되었다.

<표 V-15>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 느끼면 취업할 지 여부
(병역의 의무 수행 여부별)

(단위: 명, %)

	제대	예정	합계
정말 그렇다	38(15.3)	31(22.8)	69(17.9)
약간 그렇다	88(35.3)	34(25)	122(31.7)
그저 그렇다	56(22.5)	35(25.7)	91(23.6)
약간 아니다	48(19.3)	24(17.7)	72(18.7)
전혀 아니다	19(7.6)	12(8.8)	31(8.1)
합계	249(100.0)	136(100.0)	385(100.0)

대학생들은 직장의 안정성을 중요하게 느끼고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급여가 작아도 직장이 안정적이라면 취업하겠다고 생각에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는 응답비율은 53.7%이고 그렇지 않은 비율은 19.3%로 나타나 직장의 안정성이 직업선택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표 V-16> 급여가 작아도 직장이 안정적이면 취업할 지 여부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122	15.80
약간 그렇다	285	36.92
그저 그렇다	216	27.98
약간 아니다	110	14.25
전혀 아니다	39	5.05
합계	772	100.00

자신의 급여가 작아도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 된다면 취업하겠다는 응답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다소 많다. 남학생의 경우 54.8%인데 여학생은 50.2%로 남학생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17> 급여가 작아도 직장이 안정적이면 취업할 지 여부(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정말 그렇다	74(16.8)	48(14.5)	122(15.8)
약간 그렇다	167(38)	118(35.7)	285(36.9)
그저 그렇다	113(25.7)	102(30.8)	215(28.0)
약간 아니다	59(13.4)	51(15.4)	110(14.3)
전혀 아니다	27(6.1)	12(3.6)	39(5.1)
합계	440(100.0)	331(100.0)	771(100.0)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의 유무에 따라 직장 선택의 기준이 약간 달라지는 양상을 볼 수 있다. 자신의 급여가 작아도 직장의 안정성이 보장된다면 취업하겠다는 응답은 제대자가 예정자 보다 많다. 제대자의 경우 56.5%인데 입대 예정자의 경우 49.7%로 제대자들이 안정성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18> 급여가 작아도 직장이 안정적이면 취업할 지 여부

(병역의무수행 여부별)

(단위: 명, %)

	제대	예정	합계
정말 그렇다	44(17.5)	23(16.8)	67(17.3)
약간 그렇다	98(39.0)	45(32.9)	143(36.9)
그저 그렇다	58(23.1)	42(30.7)	100(25.8)
약간 아니다	34(13.6)	20(14.6)	54(13.9)
전혀 아니다	17(6.8)	7(5.1)	24(6.2)
합계	251(100.0)	137(100.0)	388(100.0)

대다수의 대학생들은 평생직장관을 가지고 있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한번 입사하면 평생 근무한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은 61.1%이고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들의 평생직장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19> 한번 입사하면 평생 근무한다는 생각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220	28.68
약간 그렇다	247	32.20
그저 그렇다	150	19.56
약간 아니다	107	13.95
전혀 아니다	43	5.61
합계	767	100.00

남학생과 여학생의 직장관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61.5%, 여학생의 경우 60.0%로 나타나 남녀 간에 차이가 없다.

<표 V-20>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정말 그렇다	129(29.5)	90(27.4)	219(28.7)
약간 그렇다	140(32)	107(32.6)	247(32.2)
그저 그렇다	85(19.4)	65(19.8)	150(19.6)
약간 아니다	56(12.8)	51(15.6)	107(14.0)
전혀 아니다	28(6.4)	15(4.6)	43(5.6)
합계	438(100.0)	328(100.0)	766(100.0)

남학생의 경우 군 복무 예정자 보다 체대자가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다소 크다.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정말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을 합치면 체대자의 경우 63.8%, 예정자의 경우 59.1%로 조사되었다.

<표 V-21>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병역의무수행 여부별)

(단위: 명, %)

	제대	예정	합계
정말 그렇다	86(34.5)	30(21.9)	116(30.1)
약간 그렇다	73(29.3)	51(37.2)	124(32.1)
그저 그렇다	52(20.9)	26(19)	78(20.2)
약간 아니다	21(8.4)	24(17.5)	45(11.7)
전혀 아니다	17(6.8)	6(4.4)	23(6.0)
합계	249(100.0)	137(100.0)	386(100.0)

한국의 대학생들은 취업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평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이라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은 29.6%이지만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9.0%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학생들이 긍정적인 취업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V-22>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이라면 취업하지 않겠다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57	7.49
약간 그렇다	161	21.16
그저 그렇다	246	32.33
약간 아니다	213	27.99
전혀 아니다	84	11.04
합계	761	100.00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이라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소득수준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정말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은 20.5%이지만 600만원 이상인 경우 26.4%로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V-23>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직장이라면 취업하지 않겠다(가계소득별)

(단위: 명, %)

	정말그렇다	약간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150만원 미만	4	22	34	43	21	124
	3.2	17.7	27.4	34.7	16.9	100.0
151-300 만원	17	57	111	86	37	308 1
	5.5	18.5	36	27.9	12	100.0
301-450 만원	17	42	52	46	12	169
	10.1	24.9	30.8	27.2	7.1	100.0
451-600 만원	9	27	24	17	8	83
	10.8	32.5	28.9	20.5	7.2	100.0
601만원 이상	6	9	17	17	6	55
	10.9	16.4	30.9	30.9	10.9	100.0
총 합	53	157	238	209	82	739
	7.2	21.2	32.2	28.3	11.1	100.0

또한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하겠다는 응답비율은 75.9%이고 반면 취업하지 않겠다는 비율은 7.2%로 나타나 직장 선택의 기준이 자신의 발전가능성이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표 V-24>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하겠다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286	37.24
약간 그렇다	297	38.67
그저 그렇다	130	16.93
약간 아니다	41	5.34
전혀 아니다	14	1.82
합계	768	100.00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하겠다는 응답은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매우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을 합치면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경우 각각 86.5%와 81.8%이나 법과계열과 상경계열의 경우 각각 62.6%와 72%로 조사되었다.

<표 V-25>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하겠다(계열별)

(단위: 명,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인문	응답자수	42	28	9	1	1	81
	퍼센트	51.9	34.57	11.1	1.2	1.2	100.0
사회	응답자수	17	19	10	5	0	51
	퍼센트	33.3	37.25	19.6	9.8	0	100.0
법과	응답자수	21	21	16	7	2	67
	퍼센트	31.3	31.3	23.9	10.5	3	100.0
상경	응답자수	71	71	42	9	4	197
	퍼센트	36.	36	21.3	4.6	2	100.0
자연	응답자수	35	55	12	5	3	110
	퍼센트	31.8	50	10.9	4.6	2.7	100.0
공과	응답자수	72	76	27	10	4	189
	퍼센트	38.1	40.2	14.3	5.3	2.1	100.0
교육	응답자수	6	13	8	2	0	29
	퍼센트	20.7	44.8	27.6	6.9	0	100.0
의학	응답자수	0	0	3	0	0	3
	퍼센트	0	0	100	0	0	100.0
예체 능	응답자수	22	14	3	2	0	41
	퍼센트	53.7	34.2	7.3	4.9	0	100.0
총합	응답자수	286	297	130	41	14	768
	퍼센트	37.2	38.7	16.9	5.3	1.8	100.0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정말 취업하겠다는 응답은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남학생의 경우 77.8%이고 여학생의 경우 73.3%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표 V-26>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선택 정도(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정말 그렇다	176(40.3)	109(33.0)	285(37.2)
약간 그렇다	164(37.5)	133(40.3)	297(38.7)
그저 그렇다	64(14.7)	66(20.0)	130(16.9)
약간 아니다	23(5.3)	18(5.5)	41(5.3)
전혀 아니다	10(2.3)	4(1.2)	14(1.8)
합계	437(100.0)	330(100.0)	767(100.0)

중소기업이라도 미래도 밝다면 취업하겠다는 의사는 군복무를 마친 제대자가 그렇지 않은 예정자보다 약간 많다. 제대자의 경우 79.1%이고 예정자의 경우 75.2%로 나타났다.

<표 V-27>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다면 취업할 지 여부(병역의무수행 여부별)

(단위: 명, %)

	제대	예정	합계
정말 그렇다	107(43)	49(35.8)	286(37.2)
약간 그렇다	90(36.1)	54(39.4)	297(38.7)
그저 그렇다	35(14.1)	23(16.8)	130(16.9)
약간 아니다	10(4.0)	10(7.3)	41(5.3)
전혀 아니다	7(2.8)	1(0.7)	14(1.8)
합계	249(100.0)	137(100.0)	768(100.0)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45.3%이고 그렇지 않다는 비율은 29.1%로 나타나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면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V-28>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하겠다

(단위: 명, %)

	응답자	백분율
정말 그렇다	116	15.12
약간 그렇다	232	30.25
그저 그렇다	196	25.55
약간 아니다	144	18.77
전혀 아니다	79	10.30
합계	767	100.00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하겠다는 응답은 전공분야에 따라 다르다. 취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큰 인문계열의 경우 매우 그렇다는 비율과 약간 그렇다는 비율을 합치면 53.1%이다. 반면 법과계열의 경우 그 비율은 각각 35.4%로 나타났다.

<표 V-29>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선택정도(계열별)

(단위: 명, %)

		매우그렇다	약간그렇다	보통이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인문	응답자수	23	20	19	16	3	81
	퍼센트	28.4	24.7	23.5	19.8	3.7	100.0
사회	응답자수	9	18	13	9	2	51
	퍼센트	17.7	35.3	25.5	17.7	3.92	100.0
법과	응답자수	9	14	18	19	5	65
	퍼센트	13.9	21.5	27.7	29.2	7.7	100.0
상경	응답자수	34	53	52	35	24	198
	퍼센트	17.2	26.8	26.3	17.7	12.1	100.0
자연	응답자수	14	40	23	18	14	109
	퍼센트	12.8	36.7	21.1	16.5	12.8	100.0
공과	응답자수	15	65	48	38	24	190
	퍼센트	7.9	34.2	25.3	20	12.6	100.0
교육	응답자수	3	10	10	4	2	29
	퍼센트	10.3	34.5	34.5	13.8	6.9	100.0
의학	응답자수	0	0	1	0	2	3
	퍼센트	0	0	33.3	0	66.7	100.0
예체 능	응답자수	9	12	12	5	3	41
	퍼센트	22	29.3	29.3	12	7.3	100.0
총합	응답자수	116	232	196	144	79	767
	퍼센트	15.1	30.3	25.6	18.8	10.3	100.0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하겠다는 의사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조금 많다. <표 V-30>에서 보듯이 정말 그렇다와 약간 그렇다는 응답비율은 남학생의 경우 43.4%인데 비해서 여학생의 경우 47.9%로 나타났다.

<표 V-30>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선택정도(성별)

(단위: 명, %)

	남	여	합계
정말 그렇다	61(13.9)	55(16.8)	116(15.1)
약간 그렇다	129(29.5)	102(31.1)	232(30.3)
그저 그렇다	111(25.3)	85(25.9)	196(25.6)
약간 아니다	81(18.5)	63(19.2)	144(18.8)
전혀 아니다	56(12.8)	23(7.0)	79(10.3)
합계	438(100.0)	328(100.0)	767(100.0)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하겠다는 의사는 졸업이 다가올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말 그렇다는 응답은 1학년은 11.1%, 3학년은 15.9%, 4학년은 18.0%로 나타났다.

<표 V-31>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선택정도(학년별)

(단위: 명, %)

	정말그렇다	약간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1학년	11(11.1)	29(29.3)	22(22.2)	29(29.3)	8(8.1)	99(100.0)
2학년	22(12.8)	58(33.7)	41(23.8)	30(17.4)	21(12.2)	172(100.0)
3학년	42(15.9)	79(29.9)	71(26.9)	49(18.6)	23(8.7)	264(100.0)
4학년	41(18)	66(29)	60(26.3)	35(15.4)	26(11.4)	228(100.0)
총합	116(15.2)	232(30.4)	194(25.4)	143(18.7)	78(10.2)	763(100.0)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하겠다는 의사는 가계소득수준이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정말 그렇다고 동의하는 응답비율은 150만원 미만의 경우 22.8%, 301-450만원의 경우 11.7%, 600만원 이상은 9.1%로 조사되었다.

<표 V-32>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다면 취업선택정도(가계소득별)

(단위: 명, %)

	정말그렇다	약간그렇다	그저그렇다	약간아니다	전혀아니다	총합
150만원 미만	29	35	34	21	8	127
	22.8	27.6	26.8	16.5	6.3	100.0
151-300 만원	50	98	87	50	24	309
	16.18	31.72	28.16	16.18	7.8	100.0
301-450 만원	20	50	44	33	24	171
	11.7	29.2	25.7	19.3	14	100.0
451-600 만원	6	24	18	23	12	83
	7.2	28.9	21.7	27.7	14.5	100.0
601만원 이상	5	22	11	12	5	55
	9.1	40	20	21.8	9.1	100.0
총 합	110	229	194	139	73	745
	14.8	30.7	26	18.7	9.8	100.0

제 6 장 대학생의 재학 중 취업준비 및 만족도 결정요인 분석

제1절 분석모형의 설정

본 절에서는 조사대상자인 대학 재학생들의 재학 중 취업준비 정도 및 취업준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어떤 요인들이 취업준비 정도 및 그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확히 식출하여 향후 취업준비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개인 학생들은 물론이고 대학 관계자와 정책담당자들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분석을 위해 종속변수로 취업준비 정도와 관련된 상황을 알 수 있는 변수, 취업준비에 대한 만족도 변수를 각각 선정하였다. 첫 번째 종속변수는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의 보유 정도' 변수이며(모형 1), 두 번째 종속변수는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자신의 만족도' 변수(모형 2)이다.

설명변수는 앞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다양한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변수로는 성, 연령, 학년, 학교 소재지, 전공, 가구의 월 소득수준, 일하고 싶은 직장의 선정 여부, 학점, 토익점수 등이다.

제2절 분석 결과

앞에서 설정한 분석모형 추정을 위해 일반선형모형(General Linear Model)을 사용하였다. 이 모형을 사용하여 재학 중 취업준비 및 그 만족도에 대한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가. 모형 1: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의 보유 정도

설문 내용은“귀하는 취업준비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이다. 이것을 5단 척도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대답 항목을 점수로 환산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먼저 성별로 취업의지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연령변수의 경우 다른 사정이 동일하다면 연령이 많을수록 취업준비를 더욱 많이 할 것이다. 학년의 경우에도 고학년 학생일수록 취업준비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근 대졸 노동시장이 경색되면서 대학생들의 취업준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변수의 영향도는 흥미로운 주제일 수 있다.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장의 선정 여부’변수에서는 이미 선정한 학생들의 취업준비 정도가 그렇지 못한 학생들보다 더욱 높을 것이다. 또한 학교소재지별 취업준비 정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난이 더욱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 대학 졸업생보다는 지방대 졸업생의 취업준비 정도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1> 취업준비를 위한 필요 정보 보유 정도

	추정식1		추정식2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1.347**	0.651	1.168*	0.683
남성더미	0.024	0.086	0.068	0.090
연령	0.042*	0.026	0.040	0.026
직장선택 더미	0.693***	0.074	0.650***	0.077
특정 시험 준비 더미	0.184***	0.035	0.191***	0.037
학점	-0.007	0.039	-0.035	0.041
토익점수	-0.105***	0.028	-0.090***	0.031
아르바이트 경험 더미	0.139*	0.079	0.180**	0.081
취업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0.032	0.044	-0.015	0.047
지방대학 더미	0.180***	0.073	0.222***	0.077
1학년 더미	-0.409**	0.185	-0.370**	0.193
2학년 더미	-0.355***	0.126	-0.331***	0.132
3학년 더미	-0.214**	0.092	-0.186**	0.094
예체능계열 더미	0.397**	0.197	0.440**	0.205
의학계열 더미	0.124	0.666	0.168	0.671
교육계열 더미	0.084	0.230	0.179	0.237
이공계열 더미	0.120	0.127	0.096	0.132
사회계열 더미	0.144	0.125	0.173	0.130
월소득 150만원 미만 더미			0.116	0.175
월소득 150-300만원 미만 더미			-0.007	0.162
월소득 300-450만원 미만 더미			0.312**	0.166
월소득 600만원 이상 더미			0.182	0.182
취업준비기간 예상:졸업전 취업 더미			0.001	0.140
취업준비기간 예상:0-3개월 더미			-0.085	0.137
취업준비기간 예상:3-6개월 더미			0.030	0.136
취업준비기간 예상:9-12개월 더미			-0.124	0.171
취업준비기간 예상:12개월 이상 더미			-0.067	0.156
Adj R2	0.270		0.283	
F 값	14.40***		9.18***	
표본수	679		630	

주: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추정식은 설명변수 조정을 통해 2개로 만들었으며, 각 추정식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 <표 VI-1>이다. 추정식 1의 설명변수는 성, 연령, 구체적 직장 선정 여부, 취업을 위한 특정 시험 준비 여부, 학점, 토익점수, 아르바이트 여부, 취업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대학의 소재지(지방대학=1, 수도권대학=0), 학년(4학년 기준), 전공(인문계열 기준)이다. 그리고 추정식 2의 설명변수는 추정식 1의 설명변수에 가구 월소득 규모, 취업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준비기간 변수를 추가하였다.

먼저 추정식 1을 살펴보자. 예상대로 연령이 높은 학생들, 이미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장을 선정한 학생들의 경우에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의 보유 정도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하기 위해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토익점수가 높은 학생들의 취업준비 필요 정보 보유 정도가 더욱 높았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역시 취업준비 정보를 더욱 많이 가지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취업난을 더욱 강하게 경험하고 있는 지방대 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학년 학생들이 다른 학년의 학생들보다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다. 전공과 관련해서는 다른 계열보다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취업준비 정보를 더욱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성, 학점, 취업문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 변수는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 보유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식 2의 결과를 보면, 추정식 1에서 고려한 설명변수들의 분석결과와 거의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새로 추가한 '가구 월소득 규모'와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준비기간에 대한 예상' 변수의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다만 가구 월소득 300-450만원 사이에 있는 학생들의 취업준비에 대한 필요정보 보유 정도가 높으나 그 유의수준으로 낮게 나타났다.

나. 모형 2: 자신의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만족도

설문 내용은 “귀하는 본인의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에 만족하고 있습니까?”이다. 이것을 5단 척도로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대답 항목을 점수로 환산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추정식은 설명변수 조정을 통해 2개로 만들었다. <표 VI-2>를 통해 각 추정식의 분석결과를 알 수 있다. 추정식 1의 설명변수는 모델 1과 동일하게 성, 연령, 구체적 직장 선정 여부, 취업을 위한 특정 시험 준비 여부, 학점, 토익점수, 아르바이트 여부, 취업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대학의 소재지(지방대학=1, 수도권대학=0), 학년(4학년 기준), 전공(인문계열 기준)이다. 그리고 추정식 2의 설명변수 역시 모델 1의 추정식 2와 같이 추정식 1의 설명변수에 가구 월소득 규모, 취업할 때까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준비기간 변수를 추가한 것이다.

<표 VI-2>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만족도

	추정식1		추정식2	
	추정계수	표준오차	추정계수	표준오차
상수항	1.330*	0.720	1.179	0.772
남성더미	0.089	0.096	0.103	0.102
연령	0.063**	0.028	0.058**	0.030
직장선정 더미	0.347***	0.082	0.364***	0.087
특정 시험 준비 더미	0.196***	0.039	0.197***	0.042
학점	-0.163***	0.043	-0.172***	0.046
토익점수	-0.156***	0.031	-0.145***	0.035
아르바이트 경험 더미	0.061	0.087	0.037	0.092
취업문제 심각성 인식 정도	-0.032	0.049	-0.018	0.054
지방대학 더미	0.042	0.081	0.067	0.087
1학년 더미	-0.127	0.206	-0.115	0.218
2학년 더미	-0.016	0.140	0.022	0.149
3학년 더미	-0.074	0.102	-0.052	0.107
예체능계열 더미	0.420**	0.220	0.394*	0.233
의학계열 더미	-0.917	0.742	-0.734	0.763
교육계열 더미	0.026	0.252	0.099	0.265
이공계열 더미	0.179	0.141	0.039	0.150
사회계열 더미	0.066	0.139	0.011	0.148
월소득 150만원 미만 더미			0.049	0.197
월소득 150-300만원 미만 더미			0.016	0.182
월소득 300-450만원 미만 더미			0.091	0.188
월소득 600만원 이상 더미			0.087	0.206
취업준비기간 예상:졸업전 취업 더미			0.215	0.158
취업준비기간 예상:0-3개월 더미			0.241	0.154
취업준비기간 예상:3-6개월 더미			0.204	0.153
취업준비기간 예상:9-12개월 더미			0.167	0.195
취업준비기간 예상:12개월 이상 더미			0.155	0.176
Adj R2	0.192		0.199	
F 값	9.31***		5.81***	
표본수	682		633	

주: *는 10% 수준, **는 5% 수준, ***는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

추정식 1을 보면, 연령, 구체적 직장선정 더미, 취업을 위한 특정 시험 준비 더미, 학점, 토익점수 변수가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연령이 높은 학생, 취업하고 싶은 직장을 이미 선정한 학생, 취업을 위한 특정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 학점이나 토익점수가 높은 학생이 자신의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과 관련해서는 모델 1과 마찬가지로 예체능계열 학생들이 다른 전공 학생들보다 자신의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경험 유무, 취업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정도, 대학소재지 차이, 학년 변수는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지방대 학생이나 4학년 학생이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는 정도는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만족도가 수도권대학 학생이나 저학년 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인식하는 점이다. 이는 지방대 학생이나 4학년 학생의 취업에 대한 압박감이 더욱 높다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추정식 2의 결과를 보면, 추정식 1에서 고려한 설명변수들의 분석결과는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가구 월소득 규모'와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준비기간에 대한 예상' 변수의 새로 추가했지만, 결과의 변화는 없었다. 또한 새로 추가한 변수들이 자신의 취업준비 노력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 7 장 결 론

제1절 요약

최근 청년실업의 문제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졸업 후 취업까지는 평균 10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다수 대학생들은 재학 중 체계적인 취업준비 및 지도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 및 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경제성장률이 올해도 낮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거시적 관점에서 본 취업전망을 그리 밝아보이지는 않은 실정이다. 노동력의 수요기관인 기업들이 경기를 여전히 어렵게 보고 있기 때문에 취업의 문이 쉽게 열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지만 부분별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취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마찰적 요인에 의한 실업을 방지할 수 있다면 청년실업의 문제는 다소 진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동안 정부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05년의 경우 7,88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9,86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다. 상반기에 이미 상당한 효과를 거둔 사업이 있는 반면, 예산 집행을 시작하지도 못한 사업들이 많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늘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상당한 예산

을 투입한 일자리들이 단기적이라는 것에 정부정책의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새로운 경험을 쌓고 체험을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정부의 청년층에 대한 지원은 일정 기간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청년실업의 문제를 보다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앞선 장에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직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있어 미래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현재 대학생들이 느끼고 있는 직업관, 취업에 대한 태도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의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이 취업난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취업난의 핵심적 이유를 경제성장의 부진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대학생 스스로 취업에 대한 가치관이 취업난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취업난에 대한 인식은 남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전공계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난다. 문과외의 경우 인문계열에, 이공계의 경우 자연계열에 소속된 대학생이 취업난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다. 또한 학점이나 영어성적 등에 따라 대학생의 취업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 학업이 우수한 학생일수록 취업난에 대한 불안은 상대적으로 작다.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자신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해서 문제점을 크게 느끼고 있다. 주된 이유는 대학을 다니면서 취업준비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신입생의 경우에도 취업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 취업준비에 대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실제로 대학이 진로지도에 관련된 교육이나 상담기능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이 늦게 시작되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 대학생들이 취업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는 시기는 3학년이 된다.

대학생들은 학업 따로 취업준비 따로 하고 있다. 취업준비를 위해서 학원 등에 다니며 영어 등 외국어와 자격시험공부를 한다. 이로 인한 대학생의

사교육비 부담은 상당히 크다. 대학을 졸업하기 전에 2명중의 1명꼴로 휴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 기간은 1년 정도가 가장 많아 입학 때부터 졸업에 걸리는 기간은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5년이 된다. 대학생들은 아르바이트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직장생활체험이나 경력개발 등의 이유보다는 용돈벌기 등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신입생의 경우 자신이 선택한 전공과 대학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지만 학년이 올라가 졸업할 때 쯤 되면 평가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년에 관계없이 대학교육이 취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 그러나 현재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대학의 지원은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학을 통해서 채용 등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는 경우는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들은 자신의 전공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으며, 교과목에 대해서도 만족하고 있다. 전공, 교과목 그리고 교수학습방법을 비교하면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상대적으로 크게 느끼고 있다. 대학교육을 통해서 전공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 전공지식과 대인관계능력의 습득을 비교하면 대학교육이 대인관계능력을 키우는데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이것은 대학생의 대학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만, 취업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단된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대학생 스스로 자신의 취업관이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건전하다고 볼 수 있다. 직장선택의 기준으로 일에 대한 보람을 중시하고 있고, 취업하면 당장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일을 배울 수 있는 잠재성을 중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번 입사하면 계속 근무하겠다는 생각이 강하며, 직장 선택의 기준으로 고용의 안정성을 중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은 물론 비정규직으로의 채용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졸업 후 희망하는 진로는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다. 취업 후 애로사항을 외모나 신체조건 등이 장애가 된다고 생각하는 대학생은 작으며 이것 또한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지

지 않고 있다. 학점과 영어실력이 진로선택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학점이 나 영어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기업 등의 취업보다는 창업 등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과 대학원, 기업체 취업과 정부기관 취업 등의 선택은 전공에 따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생이 취업을 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개인적으로는 영어 등 외국어문제이며 사회 전체로 보면 취업에 필요한 정보부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채용정보 뿐 아니라 기업이 필요한 인적자원의 자질에 관한 정보, 기업에 대한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중에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적자원의 자질에 대한 정보부족을 가장 심각하게 느끼고 있다. 취업에 관한 정보는 주로 인터넷과 친구 및 선배 등을 통해서 입수하고 있으며 반면, 대학을 통해서 얻는 정보는 미미하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취업에 필요한 정보부족 문제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하며 이것은 여학생이 인적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학의 취업준비지원활동이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문제에 대한 관심은 커져 취업지원을 담당하는 기구를 설치하고 전담 직원을 배치하며, 교직원을 상대로 취업지원에 대한 캠페인을 하는 등 과거에 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력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면접에 대한 요령 등을 아려주는 강좌를 개설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기업 등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 졸업생이 재학생을 상대로 취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만으로는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기업 등 외부에서 대학에 채용광고나 구인요청이 들어오면 이것을 전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만약 취업지원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요원들이 체계적으로 도와준다면 취업의 문은 지금보다는 넓어질 것으로 본다. 대학이 학생들의 취업을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학 행정 뿐 아니라 대학교육이 전공지식을 가르치는데 매달리고 있고 학생들에 대한 진로상담이나 진로에 대한 토론 등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 상호간의 대화가 부족한 데도 있다.

제2절 정책적 함의

대학생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변화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학생들이 대학을 신뢰하고 있지만 졸업 후에는 대학교육이 직장생활을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먼저 학생들의 취업준비활동이 대학교육과 유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것은 대학교육이 수요자중심으로 개편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대학교육을 인적자원개발의 관점에서 개편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이 노동력의 수요자 측과 공급자 측의 연계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대학교육에서 습득하는 전공지식의 경우 기업의 수요와 보다 부합하도록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 그리고 교수학습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이론중심의 교육은 지양하고, 사례에 대한 교육이나 학생들이 참여하는 실습이나 토론수업 등을 통하여 학생들이 현실세계를 이해하고 발표력 등도 키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또한 지나치게 세분화된 교과과정은 지양하고, 전공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확실히 하도록 만들어 학생들이 응용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취업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격이 있다면 교육과정을 자격취득과정과 연계시키는 노력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생의 진로지도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이 보다 체계적이고 동시에 빨리 시작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대학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동시에 교육과정 자체에 취업준비활동이 내장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신입생의 대학생활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강화하고 그 내용 중에 상당한 부분을 진로설계에 할애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수의 지도하에 학생연구회나 학생세미나 등을 도입해 전공교육을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대학생활과 졸업 후 진로에 대한 상담과 토론 등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학은 연구회나 세미나 등에 대해서 학점을 인정하는 등 지원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외국어에 대한 교육은 지금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서 대학생들이 학원 등에서 사교육을 통하여 습득하거나, 휴학까지 하면서 외국어공부 등 취업준비를 하기 보다는 대학에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교양과목에 토익도 넣는 등 획기적인 노력까지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외국어뿐 아니라 학생들의 자격취득을 위한 공부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이 학점 학업 따로 취업준비 따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 또한 교양과목이 학생들의 대인관계능력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경제는 물론 문학이나 역사 그리고 철학 등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대학생의 취업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은 다음과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

첫째,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의 단절을 지양하고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노동정책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 문제를 다루고 있고 반면 교육정책은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의 교육 및 취업준비활동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난 해결을 위한 노동정책과 교육정책은 서로 따로 움직이게 된다. 즉 노동정책은 대학을 졸업하기 이전에 대학생들이 직업을 준비하는 활동을 지원하기 어렵고 반면 교육정책은 대학생의 취업난 해결을 위한 교육의 책무성을 높이기 어렵다. 결국 사회 전체로 볼 때 대학생이 공교육과 별개로 취업을 위한 사교육을 받게 되어 교육비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대학 재학생과 대학 졸업생의 취업준비활동이 연계성을 살리지 못해 졸업 후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길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둘째, 청년층에 대한 노동정책이 후행적 지원에서 선행적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 노동정책은 대학 졸업 후 취업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이나 인턴사원제 등을 정책수단으로 삼고 있다. 대학생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 곧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정책에 주력해야 한다. 대학생이 가장 필요성을 느끼는 지원은 노동시장에 대한 정보제공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매우 다양하다. 기업 등이 요구하는 인적자원의 요소나 자질에 대한 정보부터 기업 등의 채용정보, 취

업과 연계되어 있는 각종 자격에 대한 정보 등을 들 수 있다. 인적자원의 요소나 자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학이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동시에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보다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력의 수요조사 등 채용정보의 제공기능을 강화해 대학생의 전공 선택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자격제도를 위한 자격제도가 되지 않도록 자격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뿐 아니라 각종 민간 협회 등에서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대학생들은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설 학원 등을 다니고 있다. 그러나 자격의 효용에 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대학생들이 비용이나 시간의 낭비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격을 한번 취득하게 되면 그 효력이 계속되거나 아니면 자격을 취득해야 취업이 되는 자격제도에 대해서는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적자원의 질을 높이는 기능보다 노동시장의 진입장벽만 높이는 자격제도는 개선해야 할 것이다.

학생이면서 근로자인 복합신분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대학생이 학생신분으로 기업 등에서 실습을 받을 필요가 커지고 있으나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정된 고용관계의 경직성 때문에 기업은 꺼리고 있다. 즉 기업은 일단 실습생으로 뽑으면 졸업 후에도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고 반면 대학생은 실습생으로 직업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어렵다. 따라서 학생이면서 근로자인 복합신분의 고용관계에 대한 법규정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이 취업준비차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기업에 파트타임 등으로 단기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나 여기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의 규정도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에 대한 교육정책이 입시정책중심에서 인적자원개발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대학정책은 입시정책에 매달려왔고 반면 입학한 이후 대학생의 교육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진로 및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지원 등은 정책의 관심사가 되지 못했다. 대

학생들이 취업준비활동을 학원 등에 의존하고 이것은 사교육비 부담을 늘리게 되고 가계소득이 작은 대학생은 취업에 그만큼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교육정책의 초점이 대학교육의 질 향상에 맞추어져야 한다. 형식적인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나 정보 공개는 지양하고 대학 스스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대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줄이고 대학이 책무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방해가 되는 규제는 완화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이 교육과정은 물론 학위나 자격 취득과정 등을 산업계의 수요에 맞추어 도입할 수 있는 길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다.

대학교육이 인적자원개발과 맥을 같이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대학이 산업계와 협력을 기술개발 뿐 아니라 교육부문에서도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 교육과정 개발과 교육내용의 구성,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해서 대학이 산업계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실습교육을 산업계와 공동으로 도입하고 실습생의 평가에 대한 권한을 실습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주어야 한다. 산학협력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 등의 관계를 교육계약 등 계약관계에 의거해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할 것이다.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의 문제부터 대학의 산학협력 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문제가 지금보다 유연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자격제도의 취득과 자격취득과정의 연계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들이 자격을 취득하는데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자격제도를 제대로 운영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자격제도의 설계나 운영 등은 기업이나 정부기관, 협회 등에서 주도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은 대학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 또한 자격취득에 실습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자격취득에 대한 학점의 인정이나 자격취득과정에 대한 학업의 평가 등을 대학과 자격제도의 설계 및 운영을 맡고 있는 기관이 협력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 록>

<부록 1>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부록 1>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No_____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실태조사

한국노동경제학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대학생의 취업준비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본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취업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취업준비활동의 실태와 애로요인은 아직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정부가 청년실업정책을 수립해 나가는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지만 잠깐 시간을 내 주시어 설문지를 작성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가 응답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본 조사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면 본 연구의 책임자인 단국대학교 김태기교수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 응답자의 인적 사항

1. 성별: 남(), 여()
- 2.(남성 경우만)군복무 여부: 제대(), 예정()
3. 연령: 만_____세
4. 학년: _____

5. 전공분야: ()

- ①인문 ②사회 ③법과 ④상경 ⑤자연
⑥공과 ⑦교육 ⑧의학 ⑨예체능

6. 귀댁의 월 소득수준은 얼마나 됩니까?()

- ①150만원 미만 ②150-300만 ③300-450만
④450-600만 ⑤600만원 이상

7. 등록금을 제외하고 학원비나 교통비 등 귀하가 한달 지출하는 총액은 평균 얼마나 됩니까?()

- ①25만원 미만 ②25-50만원 ③50-75만원
④75-100만원 ⑤100만원 이상

8. 학비나 용돈은 어떻게 조달하고 있습니까?()

- ①부모님이 모두 주신다.
②일부만 부모님이 주신다.
③본인이 모두 번다.

II. 대학교육에 대한 평가

1. 귀하는 현재 취업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2. 귀하는 본인의 취업준비를 위한 노력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3. 대학교육의 역할이 취업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4. 대학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취업준비에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크게 도움된다. ②약간 도움된다. ③보통이다.
 ④별로 도움되지 않는다. ⑤전혀 도움되지 않는다.
5. 귀하는 학교수업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①도서관·집에서: ____시간
 ②학원 등에서: ____시간
 ③동아리 등에서: ____시간
- 5.1. 공부시간 중에서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에 평균 몇시간 정도 할애하고 있습니까? 하루 평균: ____시간
6. 귀하는 학원 등에서 별도로 취업준비를 위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까?
 ①하고 있다.() ②하고 있지 않다.()
- 6.1. 하고 있다면 어떤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까?() 복수 선택 가능
 ①외국어 ②자격증 ③컴퓨터 등 기능시험
 ④공무원(공기업)시험 ⑤기타__
- 6.2. 하고 있다면 월 평균 얼마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까?()
 ①10만원 미만 ②10-20만원 ③20-30만원
 ④30-40만원 ⑤50만원 이상

7. 귀하의 현재 평균 학점은 얼마나 됩니까?()

- ①2.5점미만 ②2.5-3.0점 ③3.0-3.5점
④3.5-4.0점 ⑤4.0점이상

8. 귀하의 영어실력은 TOEIC기준으로 보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합니까?()

- ①500점미만 ②500-600 ③600-700
④700-800 ⑤800-900 ⑥900이상

Ⅲ. 대학생활에 대한 평가

1. 귀하는 진로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상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자주 했다. ②가끔 했다. ③한 적이 없다.

1.1. 있다면 주로 누구와 상담을 했습니까?()

- ①재학중인 선배·친구 ②졸업한 사회선배
③가족·친지 ④교수
⑤대학의 취업지원 직원 ⑥대학 바깥의 전문가
⑦기타_____

2. 귀하는 동아리·학회 활동을 하고 있다면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 ①전공관련 ②취미 ③영어
④자격증 ⑥아무 것도 안 한다. ⑤기타_____

3. 귀하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1달 이상 하고 있거나 지난 1년동안 아르바이트를 1달이상 한 적이 있습니까?

- ①있다.() ②없다.()

3.1. 있다면 귀하의 아르바이트 직장은 어떤 것입니까?()

- ①과외 ②편의점이나 식당 ③일반회사
④가업지원 ⑤대학 ⑥기타_____

3.2. 귀하가 아르바이트에 들인 시간과 버는 소득은 얼마입니까?

- ①시간: 월_____시간*년_____개월
②월 소득: _____만원

3.3. 아르바이트를 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순서대로 2개

- ①학비조달 ②용돈마련 ③사회경험
④집안사정 ⑤어학연수 ⑥기타_____

4. 귀하는 군입대 이외의 이유로 휴학을 하였거나 앞으로 휴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①있다.() ②없다.()

4.1. 있다면 휴학기간 동안 무엇을 했거나 할 계획입니까?()

- ①단기취업 ②어학연수 ③자격취득
④시험준비 ⑤기타_____

4.2 (군복무제외)졸업까지 휴학기간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개월

5. 귀하는 졸업후 취업할 때까지 걸리는 준비기간을 얼마나 예상합니까?

()

- ①졸업전 취업 ②0-3개월 ③3-6개월
④6-9개월 ⑤9-12개월 ⑥12개월이상

IV. 취업준비활동에 대한 평가

1. 귀하는 졸업후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 ①기업취업 ②정부기관 ③창업
④해외진출 ⑤대학원진학 ⑥기타_____

2. 귀하는 현재 본인이 일하고 싶은 구체적인 직장을 선정하고 있습니까?

- ①그렇다.() ②그렇지 않다.()

2.1. 일하고 싶은 직장을 선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①인지도 ②이미지 ③장래성
④급여수준 ⑤안정성 ⑥기타_____

2.2. 귀하가 일하고 싶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_()

- ①성적 ②자격증 ③경험
④외국어 ⑤인맥 ⑥출신대학
⑦자기소개 ⑧기타_____

3. 귀하는 취업을 하기 위해서 특정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①하고 있다.() ②하고 있지 않다.()

3.1. 하고 있다면 어떤 시험입니까?() 복수 선택 가능

- ①어학시험 ②자격취득시험 ③기능시험
④국가고시 ⑤기타_____

4. 귀하는 취업준비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 4.1. 취업준비에 가장 필요한 정보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가능
- ①채용정보
②기업에 대한 정보
③기업이 요구하는 자질에 대한 정보
④면접 등에 대한 정보
⑤기타_____

- 4.2. 취업준비에 필요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입수합니까? 우선 순서대로
3개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
- ①선배·친구 ②가족·친지 ③인터넷
④신문 ⑤잡지 ⑥광고
⑦대학 ⑧학원 ⑨기타_____

- 4.3. 취업준비에 필요한 주된 정보는 대학에서 입수하고 있습니까?()
- ①매우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보통이다.
④약간 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5. 대학생의 취업난이 사회적으로 심각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①경제성장의 부진 ②산업구조의 변화
③대기업 근로자의 기득권 ④대학교육의 부실
⑤대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가치관
⑥기타_____

6. 귀하가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순서대로 3개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 | | |
|----------|----------------|
| ①채용정보 부족 | ②선발기준에 대한 정보부족 |
| ③학비마련 | ④출신대학문제 |
| ⑤전공문제 | ⑥인맥문제 |
| ⑦외국어문제 | ⑧나이나 신체조건 문제 |
| ⑨기타_____ | |

V. 교육관 및 취업관

1.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가장 적합한 대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 | | | |
|----------|----------|----------|
| ①정말 그렇다. | ②약간 그렇다. | ③그저 그렇다. |
| ④약간 아니다. | ⑤전혀 아니다. | |

1.1. 내가 선택한 전공은 취업에 도움이 된다. ()

1.2.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1.3. 교수님이 수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취업에 도움이 된다.()

1.4. 내가 다니는 대학은 별도로 취업준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1.5. 내가 받는 대학교육은 전공지식을 익히는데 도움이 된다.()

1.6. 내가 받는 대학교육은 대인관계능력 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된다.

()

2. 다음의 의견에 대해서 얼마나 동의하는지 가장 적합한 답을 선택해 주십시오.

- ①정말 그렇다 ②약간 그렇다 ③그저 그렇다
④약간 아니다 ⑤전혀 아니다.

- 2.1. 나는 급여가 작아도 일에 보람을 느끼면 취업하겠다.()
2.2. 급여가 다소 작아도 직장이 안정적이라면 취업하겠다.()
2.3. 직장에 한번 입사하면 평생 근무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2.4. 남들이 알아 주지 않는 직장이라면 취업하지 않겠다.()
2.5. 중소기업이라도 미래가 밝으면 취업하겠다.()
2.6. 비정규직이라도 일을 배울 수 있으면 취업하겠다.()

끝까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구팀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으면 여기에 적어 주십시오.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국무조정실(2004), 「청년실업 종합대책(안)」.
- 기획예산처(2003), 「2003년도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편람」.
- _____ (2004), 「사회적 일자리 확충방안 검토」, 내부자료.
- _____ (2004), 「2004년도 예산참고자료」.
- _____ (2005), 「일자리 창출사업실적」, 내부자료.
- 김상헌 외(2003), 『예산사업의 사업평가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김석진·양희승(2004), 「청년실업 중장기 전망과 정책과제」,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 김주섭·박의경(2003),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실태조사』, 한국노동연구원, 2003. 2.
- 노동부(1999), 「산업구조조정과 임금보조제의 타당성 검토」.
- _____, 『고용보험백서』, 각년도.
- 전병유(1999), 『학교로부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9.
- _____ (2004), 『일자리 창출 정책 방향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전택승·원종학(2003), 『실업대책 성과평가』, 한국조세연구원.
- 정인수(1999), 『청년층 실업현황과 고용촉진대책』, 한국노동연구원.
- 정인수·남궁은성(2002), 『청년층 실업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2. 5. 25.
- 이병희(2003), 『청년층 노동시장 분석』, 한국노동연구원, 2003. 1.
- 이병희(2004), 「청년층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동아시아연구소 발표논문자료.
- 이원덕 편(2003), 『한국의 노동 : 1978-2002』, 한국노동연구원.
- 이종훈(2003), 『기업주도의 신직업훈련체제 구축방안』, 제5차 지식경영 콜로키움,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 _____ (2004), 『한국의 고용과 인적자원개발』,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 _____ (2004), 『한국의 임금』,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 재정경제부(2004), 「청년실업 현황 및 대책」.
- 재정경제부 외(2003), 「청년실업현황과 대책」.
- _____ (200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장기 비전 및 대책」, 내부자료.
2004. 2.
- 통계청(2001) 「장래인구 추계」.
- _____ (2005), 「경제활동인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 _____, 「경제활동인구월보」, 각 호.
- _____, 「고용동향월보」, 각 호.
- _____, KOSIS 웹 사이트.
- 한국개발연구원(2002), 『산업별 전망 및 취업계수 전망』.
- _____, 『KDI 분기별 경제전망』, 각호.
-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와 노동연관효과』, Monthly Bulletin,
- Anderson, P. M. & B. D. Meyer(1997), “The Extend and Consequences of
Job Turnover”, *Brookings Papers on Economic Activity: Microeconomics*, 1997.
- Gardecki, R. & Neumark(1998), D, “Order from Chaos? The Effects of
Early Labor Market Experience on Adult Labor Market
Outcomes”,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51, No.21.
- Light, A. and McGarry(1998), K. “Job Change Patterns and the Wages
of Young Men”,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80, No. 2, 1998.
- Meyer, R. H. & Wise(1982), D. A, “High School Preparation and Early
Labor Force Experience”, R. B. Freeman and D. A. Wise eds, *The
Youth Labor Market Problem: Its Nature, Causes, and
Consequenc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yan, P(2001).“The School to Work Transition: A Cross Na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41
- OECD(2004), *Employment Outlook*.

■ 저자 약력

- 김태기
- 단국대학교 교수
- 류장수
- 부경대학교 교수
- 이종훈
- 명지대학교 교수
- 이영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과 인적자원개발(I) :
대학재학생의 취업준비 실태와 정책과제

- 발행연월일 | 2005년 10월 14일 인쇄
2005년 10월 15일 발행
- 발 행 인 | 김 장 호
- 발 행 처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35-949,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2동 15-1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2)3485-5000, 5100
팩 스: (02)3485-5200
- 인 쇄 처 | 선우인쇄 (02)2272-6105, 6106
- 등 록 일 자 |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 제16-1681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비매 품 >